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活命水 同和藥房

英米建艦休日協定 兩國代表間成立

兩條約에依한均勢存續確認 對日共同提携를暗示

【倫敦廿五日發電通】廿五日午後 英米佛三國海軍條約調印에際하야 다시 右條約과는 別個로 이—든英外相과 데비스米全權과의 間에 書簡交換으로 英米建艦休日協定의 成立을 告하게되엿는데 이—든、데비스兩氏는 右書翰에잇서서 英米海軍均勢는 依然 米國政策의 指導原則이되는것으로따라 英米均勢는 華府倫敦兩條約의 滿期失効後라 할지라도 依然 存續할것이라고 確認한다 그리고 新海軍條約에 잇서서는 艦型備砲에 關한 質的制限의 協定을 지엇는데 一方 英米兩國은 더욱 量的方面에 잇서서도 相互保有 總噸數를 凌駕함과 가튼것을 企圖하지 안키를 確認한다는 旨를 强調한것으로 右 協定은 日本의 政策에 對抗하야 英米提携를 暗示한것이라하야 多大한 注目을 끌고잇다 (寫眞 右는 이—든英代表 左는 데비스米代表)

米全權과 이든英外相間의 交換文書에 依하야 英米間에建艦休日協定을成立하게한것은 當地에서도 確認하나 國務當局에서는 太平洋其他 어느 地點에잇서서나 英米密約과 如한것은 全然업다고 强調言明하엿다

自主積極外交를 廣田首相披瀝

外國의刺戟避하는態度闡明 在東外國記者團招待

【東京電話電通】廣田首相은 各內閣의恒例에따라 二十五日午後四時 首相官邸에서 在東外國新聞通信記者團을 招待하고 懇談會를 開催하엿는데 各國新聞通信社代表三十七名이 出席하얏다 廣田首相으로부터 自主積極外交政策에對하야 明確한 態度를 披瀝하고即時 質疑應答에 入하야 內政及 外交의全局에亘하야 隔意업시意見을 交換하고 午後五時지나 散會하엿다 그리고 同懇談會에잇서서 廣田首相의 對外國策內容은 東亞의 安定勢力으로서의 日本의地位를 强調하고 市場及 資源의公平한 配分을 取捨하는同時에 萬邦協和의 外交方針에 變化업다는것을 力說하고 한무로 諸外國을 刺戟함을 避하는 態度를 闡明하야 日本의外交國策의 動向을 明確히 指示한것이라하야 注目된다 그內容은左와如하다

現內閣의 對內及 對外政策에 對하여는 數日前에 公表하엿슴으로 再論할必要도 업슬줄 생각하나 日本의 對外政策의 根幹은 昭和八年三月二十七日 聯盟脫退通告時에 發布된 詔勅에 闡明되여잇는바와 갓다 要컨댄 我等은 爲先東亞의安定을 確保하는 同時에 友邦諸國과의 協和의 精神으로서 努力하고 國際平和 及 人類福祉增進에 貢獻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그리고 日本의 國際關係를 보면 多幸히 滿洲國의 健全한 發達을 보고 日中兩國도 漸次 親善하여가므로 日滿中間의 平和關係를 確立하고 나아가 그 提携協力을 促進하는同時에 此際 英米其他諸國과도 더욱 從來의親交를 厚히하고잇는바 東亞의安定을 確保하야 吾人의 大使命을充分遂行하려고 思한다 그리고 通商經濟問題에關하여는 日本의 必要를 充하야 各히 通商障害除去를 調整하야 自由로운通商進展을 圖하기爲하야 크게努力할方針이다

軍縮會議遂閉幕

新海軍條約에 各國代表調印

一九四○年會議를期待코 會議는完全히終了

【倫敦二十五日發電通】軍縮會議는 新海軍條約案에 對하야 修正에修正을 加하야 겨우最後案의 決定을보게되엿슴으로 드듸여二十五日午後四時十五分(日本時間二十六日午前一時十五分)센트·젬—스宮 안女王室에서 그最終幕을告하는 歷史的인 新海軍縮條約調印式을 擧行하엿다 爲先모셀議長으로부터開會辭가잇고 다음 데비스米代表를 爲始하야各國代表가各各演說을行하고 同五時十分부터 條約調印에드러갓다 下院에出席하얏섯기때문에 開會에 느게 參席한 이든英外相도 五時四分 式場에 나타나 調印을行하얏는바 調印은 米國을 先頭로各調印國全部가 佛語音의 順序로行하야 데비스、스탄—들레兩米代表 코방、로베르兩佛代表 몬셀、이든兩英代表 다시繼續하야各自治領의 調印에드러가 南阿聯邦代表케우터氏 愛蘭自由國代表리란비氏는 海軍이업는 理由로 調印을안코 이리하야 全部의調印을끗내여 意義잇는 調印式은同五時三十二分 完全히 終了하얏다 此日日本側은 藤井代理大使及藤田海軍大佐가 出席하고 各國全權의 着座한 馬蹄形의테—블에서 二三尺도 相隔되지안흔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兩氏가 다緊張한낫으로 對하고잇는것이 注目을끌엇다

調印式의詳細經過

【倫敦二十五日發同盟】別報와如히 新海軍條約 調印式은 二十五日午後四時十七分(日本時間二十六日午前一時十七分)센트·제임스宮 안女皇室에서 開會되야 英米佛伊 各國代表及 藤井代理大使、藤田海軍武官도 옵저—버—로 出席하엿다 劈頭 英國代表몬셀卿은 이—든外相이 事務多端하야 會議에 出席치못하엿다는旨를 述하고 代身會議를 司會하엿다 爲先 몬셀卿은 英國代表의 立場에서 會議經過를 檢討하야曰

國際軍縮協會議의 結果 國際情勢의 緩和 軍事費負擔의 輕減에 貢獻한바가 甚大하다 그리고 各國이모도 國家的權益을 毀損치안코 各國의 感情도 害하지안헛다 國際會議가 如斯한 確信下에 終了를 告한것은 前例가 드므다 日本代表가 會議圈外에 서게되엿슴은 遺憾이나 一時的이라고 確信한다 同時에 日本代表의 立場이 僞히 困難한것은 英國政府가 깁히 諒承하는 同國代表가 會議參加時에 表示한 善意와 禮讓을 謝하는바이다 日本政府는 比率主義에 對하야 强硬히 異論을 主唱하다고 諒承하나 新條約은 微塵도 比率主義의 痕跡을 남기지안헛다 이것을 日本政府도 認識할것이다 日本政府當局에 將來建艦競爭을 誘致할 處慮가잇는 如何한 行動이나 取할 意圖가업다는 言明을 聲明하는것은 英國政府가 滿足하야 然하는바이다 그러나 艦型에關한 情報의 交換에關한 競爭보담도 一層危險且 高價인 事實에 鑑하야 今後日本政府에서 新條約의 條項을 遵守하는 時間과 機會를 어드면반드시 條約에 同意하게 되기를 希望한다 聲明하엿다 條約의 使用에 關한 規定等은 全然 例外업시 近近關係國政府의 調印을 보게되는 것은 實로 新條約의 前途에 對하야 조흔 現象이라고 思한다

다음에 米國代表데비스氏는 新條約의 意義에言及하야曰

新海軍條約은 軍備制限에關한 新機構의基礎이다 米國政府는 더욱 量的制限에關한 協定에 到達하기를 要望한다 新海軍條約에는 各海軍國이 同意할수업는 條項이 皆無요 將來日伊兩國政府도 新條約에 參加하기를 切望한다

다음에 濠洲代表브루스、카나다代表맛시氏等이 各其意見을 述한다음 佛國代表코방大使는 特히 主力艦協定에對하야 再檢討를要望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佛國政府는 主力艦의 噸數에 對하야 從來의 噸數를 承認하엿스나 一九四○年의 會議에잇서서는 더욱 再檢討를加하기를 期待한다

印度代表파트라氏의 演說에뒤니여 伊太利代表 그란디大使는 伊太利政府가 調印에 參加할수업는 理由를 說明하야 暗暗히 聯盟의 對伊制裁撤收와 地中海相互援助協定의 廢棄를 要求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伊太利政府가 海軍會議의 當初意圖한 最初의 目的은 아직 解消되지 못하엿다 그리고 伊太利政府는 新條約에 調印하야 海軍上의 安全保障을 考慮할必要에 直面되어잇슴으로 新條約에 調印할수업는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一日이라도 速히 解消되여 伊太利政府도 再次海軍會議에參加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最後에 뉴—질란드代表파알氏는 日本政府의 協力을 要望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日本政府는 友誼와 善意의精神에 基하야 될수잇는대로 新海軍條約의 條項을 遵守하기를 要望한다

이것으로 各國代表의 演說은 끗막고 午後五時十一分 마침내 米國代表노—만데비스氏를 筆頭로 各國代表알파베트順으로 署名調印에 着手하야 七分後 午後五時十八分이—든外相도 會場에달녀와 即時調印式을 終了하엿다 調印式途中에 南阿代表는 本國政府로부터 調印을保留하라는 訓令을 接受하엿다 南阿聯邦政府는 特히 調印中止理由로 南阿聯邦은 海軍을 保有치안코 또 軍艦을建造할 意思가업는 事實을 擧하는데 南阿聯邦의 調印中止로 自治領中南阿聯邦과 愛蘭自由國政府가 新條約에 參加하지안키로되엿다

太平洋防備問題

日本에서英米에照會

【倫敦二十五日發同盟】軍縮條約에 關連하야 華府條約第十九條 極東에잇서서 日英米三國의『領土及屬地에잇서서 要塞及 海軍根據地에關한 現狀維持』規定이 如何한 影響을 밧게되는가는 太平洋에잇서서 日本의地位에 甚大한 關係가잇는것이라하야 重大關心을 가지고잇는데 二十五日 英國政府當局은 本問題에對하야 日英米三國政府間에 外交機關을 通하야 折衝을 行하고잇다는旨를 言明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新條約은 모든部分에 亘하야 華府條約의內容을 强補更新하엿다 華府條約中 重要問題인 第十九條에는 一切抵觸치 안는다 그리고 日本政府가 華府倫敦兩海軍條約을 破棄하고 또新海軍條約으로부터 脫退한 關係上 本條約의 將來에對하여는 日本政府는 英米兩國政府에對하야 이미그意向을 照會하엿든것이다 目下 三國政府間에는 이問題를 中心으로外交交涉을 通하야 折衝을 進行하고잇는데 英米兩國政府는 日本政府에 對하야 아직最後의 回答을 與하게되지못하엿다

歐洲情勢는只今 重大岐路에直面

回答携行한獨代表所信을披瀝

【倫敦二十五日發電通】獨逸의正式回答을 가지고 二十四日午後當地에 到着한 獨逸代表리벤트롭氏는 二十五日 데일리메일紙記者와의 會見에잇서서『今日歐洲는 重大한岐路에서게되엿다』하야 左와如히 所信을 披瀝하엿다 現在各國은 果然 眞正으로 平和를 熱望하는지 엇전지 余는 이點에 疑問을 가지는바이다 余는 獨逸國民이 베르사이유條約의 精神에 다시도라갈수는업다 그러므로 獨逸政府도自國內에잇서서 그主權이 一方的으로 制限될이는絕對로 許容할수업다는것을 確言하는바이다 余는 히틀러總統이 世界에對하야 數多의具體的要求를 提示한것이 如何한 歐洲의 政治家의常識을超越한 平和에로의 貢獻이라고 主張할수잇다고思한다 그리고 히틀러總統의 如斯한 要求가곳 獨逸이 平和의支持를 諸國에 强調하는證據라고信한다

英米間協定을 米國側도確認

【華盛頓二十五日發電通】데비스

學生運動의重大化로 學生慰撫를要請

市政府서復旦大學校長에게

【上海二十五日發同盟】上海市政府는 復旦大學學生團의 示威가 重大化한데鑑하야 二十五日午後四時 校長李登輝氏를 招致하고 學生團의慰撫를 要請하엿다 市政府는 其外百方으로 手段을다하야事態收拾에 努力하고잇다

【上海二十五日發電通】學生救國會의 排日運動은 依然 執拗히 繼續되고잇는 狀態에 鑑하야上海市政府는 南京政府의 命令을 바더 二十五日未明三時 公安局保安隊를 總動員하야 排日學生의 本據 復旦大學寄宿舍를 襲擊하야 學生運動의 首魁八名을 檢擧하고 其他의 學生全部는寄宿舍에 抑留中이다

海軍十六將級 豫備役에編入

永野海相의大英斷

【東京電話同盟】永野中將은 海軍部內의 人事一新을爲하야 二十八日附 左와如히 三軍事參議官의 三大將 中將級七名 少將六名의 待命을 斷行하기로되여 二十六日午前十一時半 各其內命을 發하엿다

軍事參議官 海軍大將 山本英輔
同 同 小林躋造
同 同 中村良三
軍令部出仕 海軍中將 今村信次郎
同 同 松下薰
同 同 津田靜枝
同 同 大野寬
同 同 和波豊一
軍令部出仕 海軍主計中將 小林省三郎
軍令部出仕 海軍少將 池邊安雄
同 同 大西次郎
同 同 江坂德松
同 同 佐田健一
同 同 精谷宗一
同 同 濱崎勝次
海軍造船少將 橋口保孝

右三軍事參議官七中將 六少將은 三月末日로서 豫備役에 編入케되엿다

蘇兵의射擊으로 滿蘇國境서衝突

日蘇兩軍對峙、繼續增員

【東京電話電通】陸軍省發表 昨三月二十五日午前九時頃 琿春東南方約四里 滿洲國境 長嶺子附近 滿洲國領土內에서 日本軍將校以下九名이 地形偵察中 突然 蘇聯兵의 不法射擊을바더 이에 應戰하면서 事態擴大를 避하기爲하야 約一千米東方에 退却하엿스나 蘇聯兵은 射擊을 中止치안코 더욱射擊을 加하면서急迫하야 日本將校名에게 損害를 주엇다 따라 日本軍은 이를救護키爲하야數十名을 派遣하엿든바 蘇聯兵은 國境監視隊와 합계警戒中 午後四時四十分 再次射擊을 開始하엿슴으로 이에 應戰하엿스나 夜에入하야 戰鬪를 中止하고 蘇聯兵은 長嶺子北方地區로 退却하엿슴으로 日本軍도 亦是戰線으로 撤退하야 後方에 集結하엿다 이衝突에서 日本軍은 將校一、下士官一、兵五、滿軍은 將校一、兵三이 負傷하얏다

朝鮮軍에서도發表

(第一報) 二十六日正午 朝鮮軍司令部發表 二十五日午前八時十分頃琿春東南方約四里長嶺子附近蘇滿國境을占據하고잇든 數十名의 蘇聯軍은 때마침同地附近을 巡回하고잇든 日本軍將校以下數名에 對하야突然狙擊을 開始하엿기때문에 이에應戰한後 南方이逐次 兵員을 增加하야 서로 對峙하고잇다 軍은元來事端의 擴大를 不欲하고 平和的解決을 期하고잇스나 其後右 狀態의攻勢를 取하면 斷乎 此를擊退하기爲하야 諸般準備를 整備하고잇다

英佛白軍事的 援助確保에努力

【倫敦二十五日發電通】佛國代表部는 理事會의 突然한 閉會에 對한 善後策을 二十四日夜半까지 凝議한結果 英佛白三國을 中心으로 三月十九日 成立한 協定案中 海牙法廷提訴案及 라인란드 國際軍警備案은 一旦 放棄할밧게업다고 斷念하는同時에 英佛白三國의 軍事的援助約束만은 獨逸의 回答遲延과 內容如何에 關係업시 確保하도록 모든 努力을 하기로 決定하고 또 라인란드要塞建築開始說이 傳하고잇슴에 鑑하야 이를 未然에 强硬히 阻止하기爲하야 强硬手段을 講究하려고 佛白共同으로 至急 對英交涉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

時題小議

朝鮮文化賞金論

篤志有力者에보내는書 (二)

安在鴻

昨今 朝鮮文學問題에 關하야 文壇人으로부터 大小의論議가 잇는줄로 듯엇다 나는 文學에는 門外漢이라 이를 干與할바못되나 그러나 文學그것이 詩歌 小說 文藝批評또는 그方面의 史의 著作等等을아울러 民衆文化에 重大한作業으로 寄與되는바는 아마누구나다 認識할바이다 朝鮮의文學은 지독한 漢化主義的인舊時代의 政法의미테 매우 그拔本塞源的인 迫害를 입엇섯고 그것이 엇도든지 數世紀에 아즉도 雜雜不純한 草昧한途程에 잡혀잇는때가 지금으로부터 오래지안헛다 現下에도 다시 巨大한 新波濤의蕩흠에서 간신히 그生命이浮沈하고 잇는 事情이다 論者흔흔 朝鮮文學의 危機를 부르짓는바 잇스니 참인 것이다 朝鮮文學은 朝鮮의 讀者先輩者들의 손에依하야 오히려 그生長 發展및 그完成을期하여야 할바이다 모든힘은生活이 그存在를 條件짓거니와 이러한 一小部面的인 問題에잇서서 그는結局 從事人의生活및硏究의 資金問題로써 그個人的인 條件을 結定짓는것이다 그리고 그天稟이 優秀한 文學人될수잇스되 그貧窮함이 이를 完成할수업는 者果은만흔것이니 여기서 吾人은朝鮮文學 獎勵의때문에의 朝鮮文學賞 基金積立과 및 그實擧行의 推薦 勸誘의말을보부친다 朝鮮의 資産家는 先進國家의 그들처럼 巨大치는못하다 그러나 우리의 處한바時代情勢는 그資産의 一部를事業에 提供함으로서 不朽의名譽를 남기기에 넘넘다 不朽의名譽는 一片虛榮이아니니人生一代의 一大快事인것이다

×

詩歌 小說 文藝批評 또는史學上의 著述로서 朝鮮人의心琴을 가장잘 울려내어 朝鮮文 文藝作品으로서 燦然히빗날수잇고 이것이 또 國際的으로 紹介될수 잇는者로 우리의 鄕土를 香내나게 할者이어든 그作者에게 相應한文學賞을주어 그硏究의 費를보태어주고 흑 그大成의 資를삼도록 할것이다 純然한 文藝에 限할바이아니니 繪畫 音樂等 民衆의 情操를 淨化또는 昂揚케 할수잇는 藝術諸品에 잇서서도 相應한賞金으로 그硏究및 大成을 도읍것이다 朝鮮의 自然이 만흔風景 勝區의 美를 가젓고 그곳마다 가지가지 鄕土傳說을실고잇다 이것이 다 畫生의書材로 될수잇고 朝鮮史上의 만흔事件과 傳說과 또는 說話的인 場面이 모다 풍부한 書題및 書材될수 잇는것이니 이것은 文化的 處女地인 만치 또 活用의 無盡藏으로되어 잇다 山水를 그리는 者漢士人의 어느 糟粕을 할퍼 人物畫이면 벌서 唐宋以前의 中國人의 冠巾野服을 지금히 그적어림 必要는 全혀업지아니한가? 또는 朝鮮的인 歌謠에 朝鮮色인 韻律이 萬衆을 鼓舞興感시키기에 足한作曲이어든 이것도또한 賞金으로써 推奬 奬勵케하는 資를삼을것이다 그럼으로 文學에 그치지안허 繪畫 音樂 其他 彫刻 製作等에까지 미치어 모름지기 그朝鮮藝術의 獎勵를 準備할것이니 이것은 朝鮮文化賞으로 統稱한者이다 그리고 이것은 社會文敎와 民族文化에 深甚한關心을 가지는 有力篤志의 士女가 特히그 應分의資力을 注하야할바이다

×

무릇 三萬의基金이 오히려 一年千數百圓의 入賞者의 學資를 支供할수 잇나니 한사람이 한賞金의 基金을 寄託할수잇는것이오 흑은 數三人이 數三件의 文化賞의 基金을 聚合할수 잇는것이다 저『노벨』은 北歐의 人士이라 그의 寄託한 基金이 해마다 全世界文學者의 觀覽을集中하나니 朝鮮文化의 培養및그建設의때문에 一定한 基金을 보내두고 歲歲年年 그로因한 就進者들을 보는것 또한 快하지아니한가? 自己들의 貢獻에依하야 百歲의後 오히려後生著類의사이에 이로써 文化的精進에 資하는바 될수잇다하면 어찌 悅할바아닌가? 現代의朝鮮은 이러한 篤志有力者와함께 新時代의 誕生및그 保育을 助產함을 要하고잇다

八面鋒

◇ 殖銀頭取有賀君曰『悔내는사람이 損을보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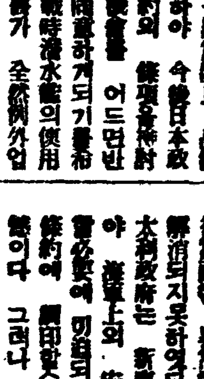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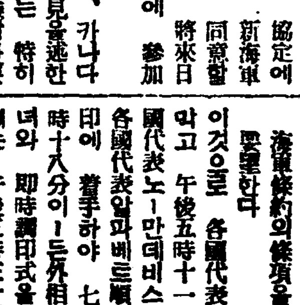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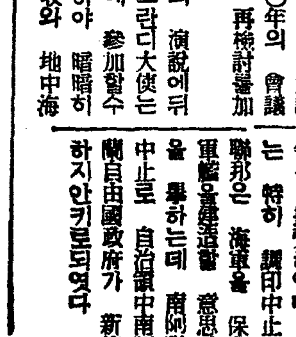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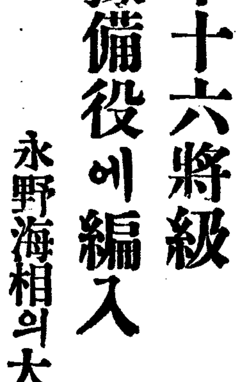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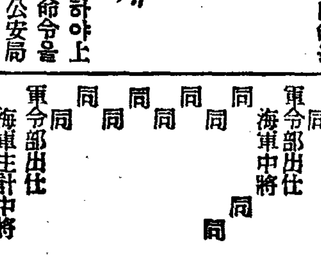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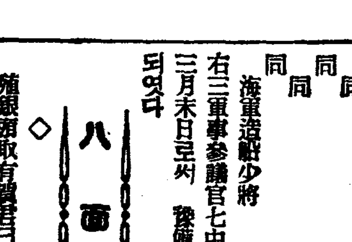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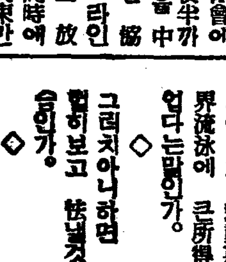
◇ 이것이 事變後東京寄行중하고 온 財界人의第一聲。

◇ 그야말로 變動期가아니면 財界流泳에 큰所得을바랄機會가 업다는말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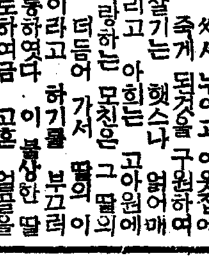
◇ 그러치아니하면 高橋財政을주워 허히보고 怯넨것은 업다는말슴이가。

◇ 數字의노름은 언제나 數字를 벗어날수업는劃、高橋의二二天作五가 高橋에서 二二下作五될수는업는劃。

◇ 不安과恐慌으로 變轉이잇는곳에 商人이 暴利를엇기야말로 光明의힘을잡을수도잇는劃。

今年의 籾摺精米作業에는
암마—純一디젤·암마—籾摺機·암마—米撰機·암마—發動機로 決定하십을!
竪型
專賣特許
橫型


全自動調整機附
十年前암마—보다 優越한것이다
唐箕附


千鳥 平面兼用 末匱
立線米撰機

米撰機中 專賣特許
암마—
農林省推薦 各府縣御指定
암마—오후쉬도式

縣內에서가장多한 需要者를有한것은 암마— 石油 輕油 發動機뿐
力武式製粉機
農林省比較審査第一位入選 取扱簡易能率多大
各府縣御指定

發賣元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京城府 長途本局(2)一〇〇三

四月新譜
OKEH
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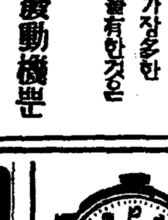
背恩忘德
어떤 어머니가 어린 유복녀를 강보에 싸서 누이고 이웃집에간 사이에 화재가 나서 아희가 불꼿 속에서 죽게 된것을 구원하야 내다가 얼골이 불에 데여 지독히 얽고 살기는 했스나 얽어매고 찌어맨 얼골이 되엿다 그리고 아희는 고아원에 맛겨 길너나서 학교에 다니는 중이엿다 사랑하는 그 딸의 옹성이라도 드려보고저 학교에 더듬어 가서 딸의 이름을 불넛다 딸은 그 모친을 제 모친이라고 하기를 부끄려워 하고 모르는체하고 조롱과 가티 ... 자기로하여금 얼골을 가지고 잇게한 은공을 생각지 안흔것이다 이제 ... 곳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하야 ... 티『예수께서 세인을 ... 가에서 죽으셧건만 ... 도로혀 저희 지식을 자랑하고 十자가를 부끄러워한다 ... 얼마나 하랴
鍾路 朝鮮耶蘇敎書會編輯室로


好職
男女適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團 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天幕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三月廿五日より三月三十一日まで 上映時間表
▲女と生れたからにや 飯田蝶子、齊藤達雄 浦田明朗トーキー
▲最後の幸福 河村黎吉、大塚君代 右太プロサウンド版
▲蛇の目定九郎 市川右太衛門、若水絹子
四月一日より上映 奧樣借用書 私このラバさんすばしりの傳次
洋劇專門 浪花館

直輸入 內地燥麥 白麥 精白米 裏糯米 玄米 中粉米 白、赤胡麻、栗
產地 釜山大倉町四丁目廿 合資會社 東一精 代表社員尹 電話一九

朝報 有給 地方駐在男 通信員募集 書及要二錢切手付送付 京城竹添町三丁目一七○號 朝鮮商工業

원표

腕卷時計 六、五○ 各國時計多量入荷 的廉價提供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 振替京城八○
名倉社 三一洋行時計部
商報進呈

玉屋時計

生徒募集 養成所 新義州若竹町十一

內科 外科 花柳病 皮膚病 X光線
檢査 無料檢査
光醫院 鐵洞二八四 廣橋

現金八百餘圓과 二千餘圓物品被奪
人質로店員三名까지拉去
大吉駐在所襲擊事件後報

【新義州支局電話】평북창성대길(昌城大吉)주재소를 이십오일 새벽에(습격한공산군은 경관대와약 세시간 교전한후 곳대안으로 건너갓는데 경관대와 군대의로벌대와 대안에잇는 로벌대가 련합하야 추격하엿스나 이미 소부대로 분산하야 로벌이곤난한 형편으로 평북경찰비행긔가 정찰한바에 의하면 약배여명의 대부대를 발견하엿스나 로벌대는 이를 발견못하야 토벌치를 못하엿다 그런데 이번습격사건의 피해상황을보면 다음과갓다 대길주재소에잇는 사용금(私用金)륙백이십오원여와 ○○약간을 강탈하여갓고 또민간측의피해로는 자경단원 박길록(朴吉錄)이가 중상한외에 길림상회의물품 이천여원엇치와 현금일백팔십원을 강탈하여갓다 또 길림상회 점원 허룡익(許龍翼) 백경용(白京鎔)、허경선(許京善)을 붓드러갓다 그리고 방금토벌대는 고천(古川)평북경찰부장의 지휘하에 경관대와 비행긔가 출동하야 추격하는중이라한다

四人團覆面强盜
短刀로脅迫現金二十圓强奪
今曉仁川府龍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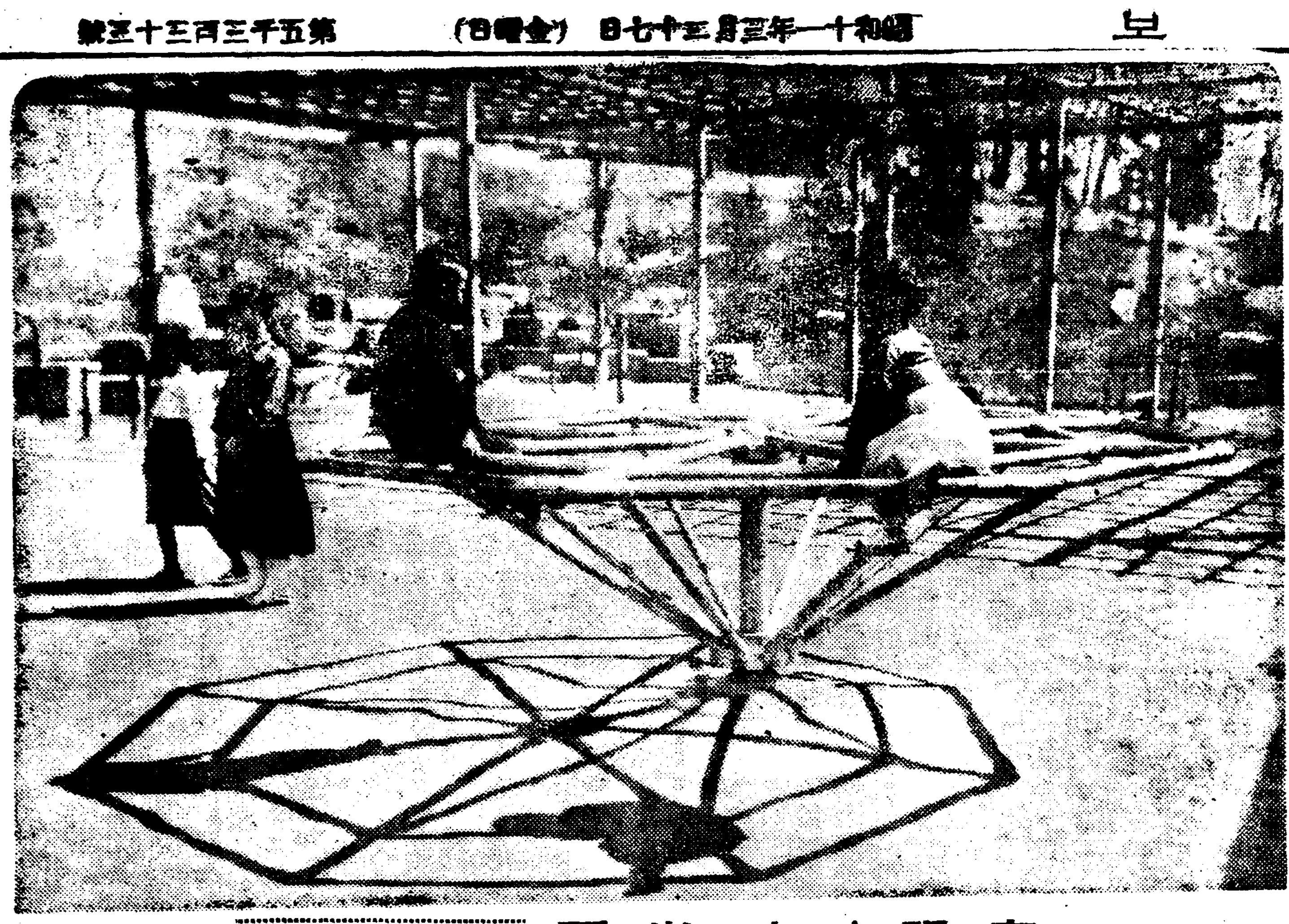
【仁川支局電話】이십륙일 새벽 다섯시쯤에 인천부룡리(仁川府龍里)일백 오십사번지 담배소매상 강범식(康範植)(五五)의상점에 로동자 가래보이는 네명의 복면강도가 쳐입하야 칼로써 주인을 위협하고 돈이십원을 강탈도주하엿다 담을넘어드러가서 한명은 박게서 망을보고 세명은 방안에드러가서 기리네치가량되여보이는 칼로써 돈을 안내면 당장에 찔러죽이다고 협박하고 돈을 빼아서 갓다한다 인천경찰서에서는 서원을 비상소집하야 범인을 수색하는중이다

空家에困睡中 三名을逮捕
◇短刀를各各所持

【仁川支局電話】별항보도한바와 가티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소관 인천경찰서에서는 형사를비상소집하여가지고 부근일대는 물론 전시내를 걸처맹렬히 범인의거취를수사하는중 이십륙일 오전 열시반경에 범행장소에서 약일정가량떠러저잇는 전에카페를경영하든 인천회관(仁川會館)자리 빈집에 네명이자고잇는것을 무난히 체포하엿는바 체포된범인은 김기수(金琪洙)(二二)리준용(李俊鎔)(二一)외한명으로 남은한명은 도주하엿다고한다 체포당시에 품에는각기 기리륙촌식이나되는 단도를 한자루식 가젓고 강탈한현금도 이십원그대로 가지고 잇섯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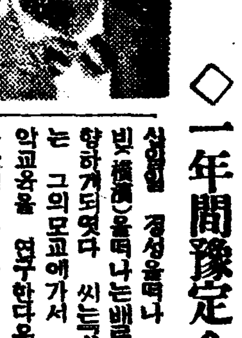
蔡奎燁歌手 콜럼비아復歸

【東京】조선서도 류행가수의쟁탈전이 이러나 뒤졋스나마 이시대적류행을 따르게되엿는데 『콜럼비아』류행가수로 유명한채규엽(蔡奎燁)군은 십년간이나 그회사전속으로 그동안마흔소리판을 취입하여왓섯는데 작년겨울부터돌연히근신동의 긔세가대단한『오케』레코드 전속으로 옴깃다는 광고가 각신문、잡지에나고 그취입한 소리판까지 『오케』로부터 발매한다고 선전되여 『오케』편은 이를 기대하엿섯는데 돌연최근에 이르러 『오케』의 그선전이 중지되고 다시『콜럼비아』의『전속채규엽』으로 선전되여 일반류행가팬들로하여금 괴이한 생각을품게하엿다한다。 요전『오케』가일본내지 각주요도시를 순회할때에도 채규엽을별출연을 발표까지하고 결국나오지못하게된것도엇저 어떤두회사 사이에는상당히 복잡한 충절이잇섯는데 이에대하야 송촌(松村)콜럼비아문예부장이 지난서울에 동경조선관계각신문긔자에 발표한 설명에의하면 채군이 아직도『콜럼비아』회사의 이년계약긔한이 남엇는데 돌연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파기를 통고하고곡『오케』와새계약을 하엿섯스나 어는 법률상문제이나 두회사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지안케하려고 내무성(內務省)관리의 입회하에 서로타협한결과 『콜럼비아』는 『오케』에 대하야 그간손해금 삼천오백원을 보상하야 원만히 해결하고 채군은 다시『콜럼비아』의전속으로 계약한년한을 채우기로 되얏다고 한다



春陽아래樂園 (오늘 덕수궁에서)

玄濟明氏渡米
音樂敎育視察兼演奏行脚
◇一年間豫定으로



연희전문학교(延專)에서는 이번에 그학교교수 현제명(玄濟明)씨를 음악교육시찰차로 미국에 파견키로되야 씨는 오는삼월삼십일일 경성을떠나 사월사일횡빈(橫濱)을떠나는배로 미국으로 향하게되엿다 씨는시카코에잇는 그의모교에가서 얼마동안음악교육을 연구한다음 약십개월동안에 북미각주와카나다에서 시찰겸연주여행을 하고 돌아오는길에는 영국(英國)독일(獨逸)이태리(伊太利)불란서(佛蘭西)등 구주렬국의 음악도시를 력방할 예정이라고한다

釜山에도大火
十六棟全燒損害二萬圓

【釜山支局電話】이십륙일오전다섯시오분에 부내초량정(草梁町)일백칠십사번지 정유호(鄭有浩)의집에서 불이이러나 리웃집들 십륙동(十六棟)이 전소되고 일동(一棟)이 반소되엿다 동륙시십분에 진화되엿는데 손해는약 이만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 전긔정유호의집 방구들 가마에서 발화되엿스며 보험에 가입된금액은 가옥에삼천구백오십원 가구(家具)에 팔천오백사십원 이라한다 그리고전소된가옥중조선인가옥이사동 일본내지인가옥 십사동이라한다

小兒四名이燒死
平昌郡下에火災慘事

경성국학전=지난이십사일 오후열시경에 강원도평창군 진부면 룡전리(江原道平昌郡珍富面龍田里)안수만(安壽萬)(五○)의 집으로부터 문허지곳으로부터 발화하야 집한채 전소하고 겨우진화하엿는데 마침곤히자고잇든 어린아이 네명이 무참히 타죽엇다고하며 손해는 오천원이라고한다

대방향으로 오는 전긔피해자가전차뒤에 잇섯슴으로 잘보이지못한것이라한다

少女失踪 부내 제동(齊洞)삼십이번지의 김종성(金鍾成)씨의집고용녀 따지김분통(金粉通)(一七)은 지난이십구일오후네시 아모말업시 집을나간후 종시돌아오지안흠으로 그주인집에서는 혹시나 어떤유인마에게 피인을바든것이나 아닌가하야 곳소관종로경찰서에 수색원을제출하고 그행방을찾고잇는중이라한다

楚山對岸에서
土兵에게兩名戰死

【新義州支局電話】이십오일오전열시이십분경에 평북초산(楚山)경찰서 응암(鷹岩)주재소 최두순(崔斗順)순사부장은 소원 전촌(前村) 김련길(金璉吉)부순사와 그곳에사는 리지실(李之實)(二九)을다려고 대안에내사를하고저 관전현전자구촌유수자(寬甸縣楡樹甲子)에 이르러 다시 강안으로부터 약삼십명의 벽지에 도착하자 돌연계통이불명한 무장단 삼십명이 나타나 산우에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야 경관대와 이십분간을 교전하엿는데 김순사와 리지실은전사하고 최두순사부장은 중상하엿다 그리고 이급보를접한 부근각주재소의 응원대가 무장단을 추격하엿스나 이미도망한후로 아모소득도업시 오후오시에 원대로도라왓다한다

電車에裂傷 이십사일 오후 일곱시십분경 봉래정(蓬萊町)일정목 일백삼십사번지 압 전차길에서 자전차와전차와 충돌되며 피해자는 눈에 열상(裂傷)을 당하고 ㅅ노진탕을 이르키여 즉시근방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데 가해자는 의주통이정목 일백칠십오번지 박경한(朴京漢)(二○)이고 피해자는 남대문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舗 普生藥房

農村管理費賦課로 營口移住民動搖
總督府에서職員을派遣코對策講究
東亞公司의怪處事

총독부외사과에서 알선하야 경영하는 영구(營口)하동(河東)철령(鐵嶺)수화(綏化)기타 각지의 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경영인 이민농장에잇는 농민들은 농촌관리비를 농민에게 부담식하는 관계상 부담이만허 이민이살수가업다고 관리비부담면제를 요구하고 동요하는 긔색이보힘으로 일전에 외사과양(楊)사무관이 신경(新京)에가서 각지파견원을 모아서 이에대한대책을협의하엿스나 아모구체안을 엇지못하엿다한다

그런데 농촌관리비라는것은 농촌관리의 인건비 소모품비(消耗品費) 기타의 경비로 상당한 거액인데 이것은 경영하는 회사당국의 사무비에 속할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보조금을 바더 경영할 동아권업회사는이것을 도리여 농민에게 부담식히는 관계로 겨우갱생의 첫길을 밟버나가려는 농민의 부담은 너무 무거워지며 커지기때문에 이주농민은 이에반대하야 각농장이 동요하고 엇는터이라한다 총독부에서도 이문제는 장차의 대이민계획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임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잇는중이라한다

水銀은萬能劑!
危險한假醫師가患者마다投藥
東大門署서檢擧取調

위험천만한 가의사가 동대문서(東大門署)에 체포되엿다 시외한지면 시당리(漢芝面新堂里)이백사십칠번지의십호 송창인(宋昌仁)(五二)은 전긔주소에 전긔료치소(電氣療治所)라는 간판을걸고 치료의사노름을 하여오든중 금년삼월경 시내 서사헌정(西四軒町)일백칠십번지 문수식(文洙式)(二九)이란녀자가 다년간 위장병으로 고생하여 대학병원 세부병원외의전병원으로 점점 치료하엿스나 아무효험을 보지못하여 고생중이란 말을드른 송창인은 감언리설로 전기 환자를 속여 이십일만 지나면 완치할수잇다고 하고 투약하면서 치료하여 왓스나 병세는 점점악화할뿐임으로 위험하게도 수은(水銀)을 환자에게 먹이며 문수식은 거이 빈사상태에 잇게되엿슴으로 할수업시재차 대학병원에 입원하야 응급치료를맛게되자 전긔 사실이 탄로되여 이십사일 동대문서원에게 인치당하여 이래 엄중취조중이엇는데 그는 아래와가튼 사실도자백하엿다한다

병목정(並木町)륙십오번지 오준명(吳俊明)(四○)이 림질로부터는것을 곳처준다고하야 이여시 수은을 썻스며 동사헌정오로(鐘路)오정목삼백이십이번지 최봉진(崔鳳鎭)(三○)의 폐병치료에도수은을투약하야 병세를악화식히고 창신동(昌信洞)이백칠십팔번지 김준이(金俊伊)(一九)의 전간병(癲癇病)에 도여이수은을쓰는등 이가짜의사는수은을 만능약으로 알엇든모양인데 그는소화륙년오월 아십칠일부터 동경전기치료소(東京電氣治療所)졸업장을 가지고잇다한다

運動競技

올림픽陸上 朝鮮豫選會
諸般規定을發表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 全日本豫選會派遣朝鮮豫選大會는 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로 五月十日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諸般規定은 다음과갓다

▲申請期日=四月廿五日까지▲申請場所=總督府鐵山課尋錄係內 全朝鮮陸上協會(各地域協會에 提出하야 地域協會에서 捺印後 本部에送附申込함)(但地域協會에 提出이업시 申請한것은無効로함)▲出場資格=昭和十一年度登記者의 男子에限함▲一人出場種目=一人出場種目은 三種目以內로함(但繼走를除外함)

▲競技種目=百米 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五千米 一萬米、마라손、高障碍、中障碍、三千米障碍、四百米繼走、八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投砲丸、投圓盤、投槍、投鐵鎚、走幅跳、走高跳、三段跳、棒高跳 ▲地方參加者注意事項=地方에서 參加하야도 本部에서는旅費를 支給치아니함 ▲參加料=一人三十錢▲資格審查=本部는『프로그람』作製前에 申請書에依하야 資格審查를行하며 不合格者는 如何한 理由가잇서도 參加를拒絕함 ▲派遣選手決定=豫選會의結果 陸協選手銓衡에서決定함 ▲朝鮮標準記錄=本協會는 大會前豫選標準記錄을 作製發表하는事도 有함▲마라손參加者는醫師의 診斷書를要함

全日本卓球一勝
對全釜山戰에

全日本卓球聯盟軍의 來征第一戰인 對全釜山試合은 二十五日午後二時半부터 釜山高女講堂에서 擧行한바 結局八對零으로 聯盟軍大勝하엿다

車掌革囊專門
大膽한少年竊盜團
◇懷中에百餘圓大金을所持

차장제군은 몸지갑에 주의하시요! 이십륙일아츰 본정서에붓들린 소년절도단이잇섯는데 그는룡인군 모현면(龍仁郡慕賢面) 오양선(吳良善)(一七)외 이명으로 금년정월경부터 사람마히 오른 전차속에서 차장이 표찍기에분주허사이를 엿보아 차장돈가방을 쓰리하는것을 전문으로 근일까지 계속하여왓는데 체포당시 오양선은 바지속에 약일백사십원의 대금을가지고 잇섯슴으로 보아 피해는 거액에 오를것갓다하며 새로운 스리수법이니만치 동서에서는 엄중히 취조중이라한다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

專門校合格者

京城法學專門學校
(朝鮮人五十二名)

朱槃鎬 裵慶琮 崔昌錫 金東洙 權夏植 林鐘大 洪性澤 李丙浩 朴洞鎬 李建熙 李容國 張德璿 黃煥憲 高基鵬 李壽根 許公勳 洪文久 兪定濬 黃仁奉 玉重植

水原高農

▲農科(合格者四十一名中朝鮮人十五名)
申斗泳 李春泳 金應模 鄭南圭 金鍾喆 黃秉龍 金丙淳 韓祖烈 崔盛鉉 吳益煥 韓鼎鉉 閔永基 崔士鎬 趙炳翰 李宇地

▲林科(合格者廿六名中 朝鮮人九名)
孔元澤 李洽 李相奎 鄭明鎬 李明世 南定謙 金容寬 趙輔相 金熙泰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今夕은晴 明日은 漸次로 흐리다 京畿全區도 同一하다

昨日最高 零上七度一
今朝最低 零下四度九
今日正午 六度三

趙觀九 李相洙 鄭東燮 李元佰 金載律 鄭寶燮 崔鳳圭 金昇興 洪乾植 李應源 朴貞觀 吳君平 金定洙 金容泰 李春相 鄭秀鉉 李信八 安晩榮 趙漢龍 申鉉均 姜東鎬 李瑞鎬 毛熙京 趙信英 趙炳谷 徐基元 徐廷昱 嚴在賢 辛昌鉉 金昌模 金玉俊 張興煥

京城高等商業學校

崔濟甲 許東 張禹鉉 金應權 安光昶 奉英敏 金鍾完 孫翰杜 姜熙鎬 朱在明 崔漢龍 金英源 趙永植 朱寧鎬 朴炳敎 林炳昊 崔明鎬 崔東宇 高範俊 南寅鎬 河麗濤 朝鮮人三十一名

京城高工

◇紡織學科
禹範植 全孝燮 姜昌燮 金玉淳 李基順 陸英珠

◇應用化學科
金道植 吳信燮 金明會

◇土木學科
朴吉洙 鄭三容

◇建築學科
崔珣喆 成瓚鎬 朴尙圭 吳三用 朴大圭 李東燁 盧植 劉應鎬

◇鑛山學科
溫善鎬 柳昌燮 鄭貴甲 孫澤 閔庚岩 崔洸鎬 全興鉉 韓基鐸 鄭煥星 崔學洙(朝鮮人二十九名)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

▼다음가튼신 분은 가이자ー를쓰시오 가이자ー의효능 빈혈증(貧血症)신경쇠약(神經衰弱) 로쇠(老衰)근기상실(根氣喪失)영양부족(榮養不足)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약은환약이오동서양정제약、약갑십원、오원、중세가심하면십원짜리를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

림질 대하증 방광병엔 구로벨이 제일

▼다음가튼 종세에는 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의효능 남녀만급성림질(男女慢急性淋疾)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뇨도염(尿道炎) 고환염(睪丸炎)산증)방광염(膀胱炎) 섭호선염(攝護腺炎)녀자오좀소래、(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性諸症)약갑 특제구원、만성용과 급성용과 부인용오원、오좀소래에삼원이오 오원이나삼원이나다 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지방송료는 선금이면십오전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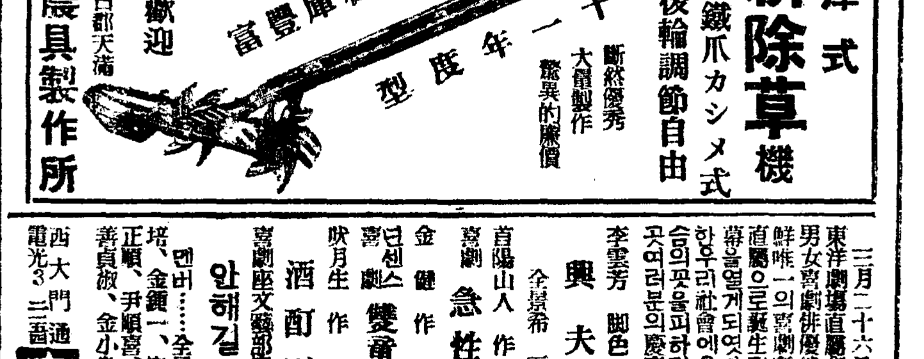
매독엔 푸로다! 가제일이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국부가 헐고가려운데 눈이희미하고 고팔다리가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 빠지며 여긔저긔종기가나고 코가헐고 멍울이슨데는 푸로다ー를쓰시오 푸로다ー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선천매독(先天梅毒)、습독(濕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약은환약이오구갑이나거나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 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중한분은보통병과다르니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만일무슨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안맛거나 링과와 틀리는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外電車停留場前 (五)재일류약상편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代表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番)

콜럼비아四月新譜
流行歌 두목숨의저승길(一)蔡奎燁 金安羅
동무의追憶
나리는이슬비(一)姜弘植
사공의안해 全玉
그님이온다(一) 高一心
新民謠 그대는누구시요
伽倻琴 中
쑥대머리 歌 金甲子
異彩를띈豪華盤
기타ー 尺八 아리랑 콜럼비아 기타ー尺八
四重奏 순풍에돗달고
流行歌 滿洲想へば 全くすばらしい

宮澤式 中耕除草機 全鋼鐵爪カシメ式 前後輪調節自由 斷然優秀 大量製作 驚異的廉價

四寸以上在庫豐富 十一年度型
◎特約歡迎 兵庫縣加古郡天滿 宮澤農具製作所

三月二十六日부터晝夜二回 東洋劇場直屬劇團 喜劇座公演
男女喜劇俳優總動員으로組織되朝鮮唯一의喜劇專門의喜劇座가東劇直屬으로誕生되여그第一回公演의幕을열게되엿다。우合이업는乾燥한우리社會에우合의씨를뿌리고우合의꼿을피하려는喜劇座의誕生은곳여러분의慶事가아나오릿가
李雲芳 脚色 興夫傳 二幕三場 全景希 石臥佛 主演
首陽山人 作 喜劇 急性戀愛病 二場
金健 作 喜劇 단센스 雙童이行進曲 一幕
狀月生 作 酒酊병거지 一景
喜劇座文藝部案 안해길드리는法 一景
멘버……全景希、石臥佛、金元培、金鍾一、宋門平、孫一平、李正順、尹順喜、崔英善、金惠淑、善貞淑、金小鳥
西大門通 電光3 二三番 東洋劇場

胃腸의良藥 가다루 柏村博士創製 ヘルプ

東邦胃腸藥中가장精妙한配劑에依하야新然光輝잇는成績을나타내고二十數年來의聲價를保持한헤루푸는食傷、水傷、時候不調、冷疑恰腹等에起因된腸胃가다루의治療에効果가잇다特히泄瀉腹痛을消退식히고消化와榮養機能을促進식히는代用은참으로靈劑敏捷快適하기다시업고慢性急性의腸胃疾患中左記와如한症狀에應用하야서滿足한奏効를내는良劑이다엇전지 배속거북할時大便後肛門에異常感잇슬時。입이말느고엇전지가슴압흘時。頻繁히설사하고배속덜를우할時。물가튼설사가계속될時。배가膨滿할時。우글우글끌코울넝거릴때。食慾업고트림만히날때。胃部가찌여질듯압흘때。食前食後에胃部가압흘때。혀에白苔끼고입내몹시날때。榮養不足貧血한때곤적곤적거린天使이나이고滋養物이살로안갈때
東京 本舖 柏村救天堂

稽顙伏謝會葬 植野實

胃腸榮養
わかもと
一劑にして此の綜合効果
全機能에미치는 細胞賦活作用
對症療法以外
「わかもと」는、在來의 化學藥劑에依한 對症療法에對하야、生物製劑에依한 綜合療法의 領域을 開拓한 特殊헤－게菌劑이다。病의 여러가지症候에應하여、그여러가지症候에 適當한藥劑에依하여治療합－－發熱에는解熱劑를、消化不良에는消化劑를、便秘에는下劑를－－라고하는對症療法의觀念으로써는同一藥劑로各科의病에對하야、널니治療効果를 發揮하는 本劑의性能은、了解되지안는것이다。그런데이에化學藥劑와對症療法의規範을脫한生物製劑－－綜合療法의 獨自的領域이 잇슴으로써、그藥理는必然的으로 前者와는 別個의立場에서 解釋하지안흐면 안되는것입니다。
베타민B以上
「わかもと」는、그本能인 特別헤－게菌의 性能에基한、細胞賦活作用을 樞軸으로한것이다。病은 그症狀이야말로 千差萬別이지만、어느거나 障碍된 器管을組織하는 細胞의機能의衰退、또는異常한病狀으로 困難밧는것은、모－든病에 共通되는것이다。細胞賦活作用이라는것은 細胞의生命인 原形質에活力을주며、그機能을 活潑케하며、衰弱을 恢復하며、異常을正常으로 恢復식히는作用이이서、「わかもと」가 一劑로서 各科의治療에 널니奏効잇는것은、이細胞賦活作用에依하는것이다。
或은헤－게菌劑의主되는効果를 베타민B에 잇다하지만、「わかもと」의 綜合治療劑로써의 基礎라는 細胞賦活作用은、오직베타민B等一二의榮養素의効果에 돌니는것은 너무나過大한것이다。眞正한優秀한 藥用헤－게劑는、베타민B以外에 더욱만흔 有効成分－－稀少榮養素、호르몬性物質、엔침－等의複雜한組成으로부터 된것을 이처서는 안된다。
數百種中의有効菌
헤－게菌이라하는것은 子裏菌類에屬한 一群의微生物에 給與한總括的屬名인바、그中有効、無効、有害의 數百種의菌을 包含한것은、이와딴一群을지고잇는 細菌屬中고레라、치부쓰等의病原菌을비롯하야、有害無害數百千種의細菌을 包含하고잇는거와갓다。「わかもと」는 그런헤－게菌中에서、가장醫藥으로써 價値잇는 特殊優良한菌을 選擇하야、全有効成分을 破壞안도록 特許方法에依하야 製劑한바로써、菌種의優秀와製法의完璧을 期함에이서 最高의 研究로 結晶된것이다。單히－게菌劑라는 名稱으로써、그成分과 効果에大差가업스리라고 밋는것은 큰 잘못이다。
粉末及錠劑
藥價低廉
錠劑三〇〇錠 粉末九〇瓦 一圓六十錢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 振替東京一七〇〇番 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家庭

이 조흔것은 일생의 큰보배

하로두세번식 깨끗시닥급시다

이닥는약 맨드는법

이가 이쁘고 튼튼한것을 오복의 하나로까지 치지오만큼 과연 이란것은 우숩은듯해도 중요한것입니다 건강의조건으로도 중요하거니와 미모의조건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천생이 어떠타는데보담도 거두기를 어떠케한다는데 더 만흔 관계를가지고 잇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의 주의로 덧니나옥니를 면할수 잇고 커서는 자긔의 주의로 하고깨끗할수 잇습니다 그러나 이뻐고 튼튼한것은 차치코 고약한 냄새를 더럭더럭 피우고 다니는 분도 잇지를 안습니까? 요사이 봄날 그러지안하도 비위가 약해지기쉬운 이때 사교상으로 그어되 될일입니까?

첫재 우리네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를 닥는것이 아조 습관이 되야잇습니다만은 이의 위생으로 보아서는 차라리 밤에 잘때 닥고 자는이만 갓지못합니다。왜그런고 하면 이똥이 안는것은 대게 자는동안이니까 예초부터 이를 깨끗이 한다면 이똥이 안슬여지가 업는 까닭입니다 둘째 흔히들 솔을 두어번 문지르다가 마나 이의 위생으로보아서는 적어도 오분이상을 가로도 닥고 세로도 닥가야 됩니다。왜그런고 하면 적은 이틈에끼인것을 모조리닥거 내자니까 아모래도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또 종횡으로고로하지안하면 안되는 까닭입니다。

요컨대 이는 자고나서와잘때와 그러케 두번쯤 닥는것이 조흡니다。또 닥더라도종횡을 드리어 일삼아닥는것이 조흡니다。

×

그뿐이 아니라 이를 멧구역으로 논하노코 다시 또 그구역의 순서를 정해노코 일정한 규칙아래 닥거가는것이 어떠습니까? 즉첫재로는 아래위스니의거죽 들재로는 아래니의 속셋재로는 윗니의속 그리고넷재로는 아래위스니가 서로 맛닷는데와 어금니의 아조안친과가리 네구역으로 쪼개노코 또지금 적은그구역의순서와가티 닥거가는것이 어떠습니까? 그런데 이를 손으로 닥는것보담은 솔로 닥거야 합니다。만일손까락으로 닥거서는 이사이사이에 끼인 것이 잘 빠지지 안습니다。또 이를 국다란 소금으로 닥는것보담은 고운가루로 닥거야합 니다。만일 국다란 소금으로 닥거서는 이의 법랑질이 벗기어지는동시 이로부터 고약한 냄새가 나게됩니다

×

시골로 가면 소금대신가는 모래로도 닥그나 그것은 굵은소금보담도 더 나쁩니다。소금이라도 곱게빠서 하거나 애초에 식염으로 파는 고운 소금을 사서 써야 합니다。그러고 소금대신 파는치분도 조코또그 치분을 집에서 멘들어 써도 조흡니다。치부맨드는처방을 멧개 소개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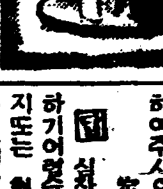
(一) 白砂糖 三〇〇 木炭末 三〇〇 키나皮 一五〇 酒石粉 五〇 桂皮末 一五〇

(二) 사리티르酸曹達 二五五 乳糖末 一一二五 重曹 一一二五 이리스根末 一一二五 紫檀末 一一二五 薄荷油 一五滴

(三) 丁字油 一五滴 薄荷油 四〇滴 桂皮油 四五滴 紫根丁幾 三瓦 酒精 二〇온스

(四) 精製牡蠣粉 二四 酒石粉 六 프크렌赤 三 丁字末 二 桂皮末 一 이리스根末 一六

가정의학



소변이자저

問 중년가정녀자입니다 화류병의의심은업습니다 십여일전부터 소변이자즈며 오줌눌때좀좀이잇습니다 소변은약간흐럿합니다 오한발열은업습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는엇지하야조흡니까 (寧邊一女性)

答 급성방광염인것 갓습니다 소변눈후에는 다시염증을해할근이 전염되기쉬우니 三%붕산수로 국부를잘씻게하시고 좌긔처방을 이주간연복하게하시요

一、우바우르지葉浸(五〇) 一〇〇
으로토로핀 二、〇
멘라水 四、〇
右一日量三回食間服用

二、重曹 一、五
보로베르진 一、五
煅製마그네시아 〇、五
右一日量分三包食直後服用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심장비대인가

問 저는 금년이십오년의청년입니다 한삼년전부터 왼편가삼이맛치어서 곤난한때가 만습니다 진찰을한즉 심장이비대하엿다고 합니다 엇더케 가정에서 용이하게치료하겟습니가? 음식과 운동은 엇더케하여 야될지하교하여주시요 (定州鄭河瀚 담당生)

答 심장이비대한증세로나타나지도는 [illegible]가서경중이면하기어렵겟습니다 [illegible]지도는 [illegible]일거십니다 그러나 [illegible]의증상은심하야참기어려우며당신증세로보면그리심한것이 안인것갓사오니 [illegible]경중이겟지요 증상이 잇슬때던지또는 그러치 안할때라도 좌긔처방을 복용하야 보시요

一、[illegible] 五、〇
重曹 一、〇〇
[illegible] 〇、五
苦味丁幾 一、〇〇
水 一〇〇、〇〇
右一日量 三回食間服用 [illegible]間連用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말을더듬어

問 십팔세남자인데 십이삼세때부터 말을더듬습니다 십오륙세때에는 조금나터니 지금은도로더듬습니다 동경 교정원과게(東京矯正院)를 사용하야도 낫지안슴니다 책을볼때 혹은창가를할때에는 아모관계업습니다 엇지하면 낫겟습니까 (南陽一讀者)

答 마음을진정하여 찬찬히말하기를 연습하게하는도리외에조흔방법이 업습니다 그런고로매일 동모하고놀때 말을찬찬하게하기를열심으로 연습하면보통사람과가티 잘말할수잇겟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童話

쥐들의공론(一)

崔秉和

어느부자집 광속에서 쥐들의공론이 열리엿습니다。벌국쥐 다람쥐 벽장쥐 부억쥐 수체구녕쥐 돗간쥐 이집안에사는 쥐란쥐는 모다 모혓습니다。회장(會長)으로는 제일 나히만히먹은 힌쥐가 뽑혓습니다。

회장이된 힌쥐는 조금노픈 쌀섬에가 올라안저서

『자! 여러분! 오날밤은 우리들에게잇서서 제일무서운 고양이에대해서 공론을하고자 생각을합니다。옛날 이러한이약이가 잇습니다。

무서운고양이 목아지에다가 방울을달아두면 고양이가 오는발자최를 즉시알수가잇다。딸랑! 딸랑!-하는 방울소리만 드르면 우리들은 집속에길히숨어서 고양이에게 잡혀서먹힐까닭이업다 이것은 조흔꾀라고해서 모다들 조화하엿스나 자!누가 고양이 목아지에다가 방울을달라가는냐 하는데이르러서는 누구나 내가 가서 달고오겟다는 쥐가업섯습니다。

그래서 못처럼 생각해냄 조흔꾀도 울거품이 되여버리엿다고합니다。얼마나 기가막히는 이약이겟습닛가?

여러분! 우리들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는것은 옛날이나지금이나 조금도변함이 업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목아지에다가 방울을 달아두면 마음을 놓수잇다는것이 지금 우리들세상에잇서서도 역시 급한문제입니다。오날밤공론은 우리들중에서 몃마리의 결사대(決死隊)를 내여가지고 이집에서 길는든 갈등고양이 목아지에다가 방울을달자는것이 큰목적입니다』하고를가튼 연설을 하엿습니다 압헤서 듯고잇든 젊을은 숙녀들은치면서

『옳습니다。얼른 결사대를뽑아서보냅시다』

『자!-그러면 자원하시는분은저에게 오시여서 말슴하여주십시요』하고 힌쥐는 여러쥐를 한번 빙!-도라보앗습니다。그러나 누구한사람 나서는사람이 업섯습니다。

『사양하실것은 업습니다。다락서방(다락에사는쥐) 자네는 각금고양이 한놈쯤은 아모렇지도안타고말하엿지。그려고 고양이에게 잡혀먹히는 쥐의얼골이보고십다고 뻥내엿지。갈등 고양이 목아지에 방울을 달고오는것쯤은아모렇지도안캣지。』

힌쥐가 이러케말하니간 다락쥐는 머리를 굴그면서

『회장! 저는 요사히 다리를 접질너서 거름을 잘못것습니다 그러치만안으면 무엇 결사대까지 뽑지안으시드라도 저혼자가서 달고오기가 어렵지안치만저 절닌 발을가지고는 오날밤에 하신것을 시험할수가 업엇읍니다。참 원통한노릇입니다。』

地下村(十二)

姜敬愛 作
熊超 畵

수수밧 머리로 파라케 보이는 저볼타산은 멧발거름 옹기면 올라갈듯이 그러케 가차워보인다。그의집 참문것헤 비껴서서 맙노코 바라볼수 잇는것은 저산이요 또이런 수수밧머리에서 쉬어가며 바라볼수 잇는것은 저산이다。

그는 한숨을 푹쉬엇다。언재나 저산을 바라볼때엔 호랑것던-말이 한데 모히는듯 하고 또한 깜박 이젓든 녯날일이한두가지 생각되군하엿다。

번산에 아지랑이 아롱아롱끼는 어느봄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문것헤서니 동무들이 조고만 지게를 지고 집팡이를지게에 끼웟이 꼿아가지고 열볼지어 산으로가고잇다。어찌나 부럽든지 단숨에 뛰어나와서 우둑허니 바라볼때 언제나 나두 이병이 나어서 재들처럼 집팡이를저리꼿아 가지고 나무하라가보나 난 어룬이되면 저산에 가서 이런 굵은 나무를 탕탕 찍어서 한짐 잔득지고 올테야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훔하고 코웃음첫다。뼈마디마디가짜릿해오고 가슴이죄여지는것갓다 두어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고 티벅티벅 걸엇다。지금 그의 압헨 큰변이가잇슬따름이다 이를호。

칠성이는 그의 마을로부터룩리나 떨어저잇는 송화읍 어구에 우둑허니 서잇섯다。읍에와서 돌아다니나 수입이 잘되지안음으로 이러케 송화읍까지오게되엇고 그래서야 겨우 큰변의 옷감을 인조견으로 바꾸어가지고 돌아 오는 길이엇던것이다。

이밤이나 어디서 지날까 망스리나 어서 빨리 이옷감을큰녀의 손에 쥐어주고 십흔맘또는 큰녀의 혼사시건이 궁금하고 불안해서 그는가기로 결정하고 걸엇다。

처다보니 별도 업는하늘감정강아지가튼 어둠이 눈속을 아릉아릅하게하는데 웬일인지 맘이 폭노히고 어뜬 히망으로그의 눈은 차차로 열렷다。산파들은 그의 맘속에 파랏케 솟아 잇는듯그려케 분명히 구별할수 잇고、신작노의 깔린 자게돌은 심심하면 작란치기 알마젓다。

사람들이 연락부절하고 자동차가 먼지를 피우며 다라나는 그낫길보다는 오히려 이밥길이 그에게는 편이나 조케 생각되엇다。그래서 다리아픈것도 모르고 걸엇다。

가다가 우뚝서면 산넘새 그옥하고、또가다가 드르면 물소리 돌돌 하는데、논틀네 학풍기고 간혹 산새우름 끈엇다여어질제、멀리 깜박여오는 동네의 등불은 포르릉 날아오는것갓다가도 다시보면 포르릉 날아간다。

그가 숨을 크게 쉴때마다 가슴에 품겨잇는 큰변의 옷감은 게집의 살결가티 자재돌을 밟는 발까락이 짜르르 울리엇다 『고것 어떠커나』그는 무의식간에 입을 쩍버리고 무엇을 물어 당길것처럼하엿다。지금 큰변이와 맛우섯든것을 머리에그려보는것이다。이제가서 이옷감을 떼올레지 가슴은소리를 내고 뛴다。

차츰 동녀 하늘이 바다와가리 휘해오는데 난데업는 비방서 그강으래한 눈섭것에 옷음울이 뚝뚝 떨어진다。그는 놀라 작고 뒤엇으나 비는 더쏫아지고 멀리서 비몰아 오는소리가 참새무리 들건느듯했다。

그는 어찌까 잠시 망스리다가 빗발에 뭇치어 어림해 보이는 서동니로 부득히 발길을 옴겻다。큰녀의 옷감이 아니면 이비를 맛으면서도 가겟으나 못처럼 끈은 이옷감이 비에 젓을것이 안되어 동네로 발길을 옴긴것이다。

한참오다가 돌아보니 신작노가 뚜렷이보이고 어젼지 맘이 수선해서 발길이따붓는것을 겨우 떼어노앗다。

동네까지오니 비에 젓인 밀집내 콜콜올라오고 변소 영뚤지나는지 거름내코밋해 살살 기고잇다。그는 어떤집 쳠하아래로 들어섯다。몸이 오줄오줄칩고 눈이 피로해서 바작 벽으로 다가서서 웅쿠리고 안자 눈을 감앗다。그의 마음압헤 홰나무가보이고 큰변이가 나타나고…눈을 번쩍 떳다。

빗발속에 날이 밝앗는데 먼산이 보이고 또 집웅이 옹기종기 나타나고 낙수물소리 요란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일어나 둘러보앗다。

그가 서고 잇는 이집이란 돈푼이나조이 잇는집 갓햇다。위선 벽이 회벽으로되엇고 집웅은 시컴한 기와로 되엇스며 널판자로 짬문의 규모가 크고 또 주먹가튼 못이 뚝뚝 박힌것을 보아 짐작할수 잇섯다。그의 엽엇던말이 다소 풀리는듯 하엿다。

우리 차지

우리집에서는 큰언니가 호랭이에요。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무서운 큰언니 큰언니 압헤서는 우리들이 꿈쩍못합니다。큰언니는 첫재 아는것이만코、둘째기운이세지요。그리구셋째로 납분일을안합니다。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역성을 안하십니다。

(글쓴사람 박치호)

뉴-욕에열린 부인실업구제

미국『뉴-욕』시에서 열린 실업구제를 위한재봉장입니다 수만흔 부인실업자가운데 바느질할줄아는사람을 추려 이재봉장에 모아노코 주문을마타 일꺼리를 마련해주는것인데 지난이월상순부터 이재봉장 이열렷습니다

시험해보시요

살찐분에게조흔 과산화수소화장품

옥시풀 즉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는 보통사람의 살결을 히게하는데도 조코 뜨구나 살찐사람의 살결을 다소 정리하는데도 조흡니다。그러나 그대로 써서는 해가되기때문으로 다른것을 석거서 써야 합니다。

(一)과산화수소화장수
가성(苛性)카리(또는탄산카리) 五 그리세린二〇 알콜二〇 물六〇 옥시풀二〇

(二)과산화수소크림
붕사五 옥시풀 一〇 그리세린一〇 무수(無水)라노린一〇 와세린一〇 香水엇방울

百貨店·藥局·小間物化粧品店에잇슴

美와魅力의 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랑

그대의春青을 明朗하게!

어엽분女性을처다보는
그것만이라도즐겁다
鮮明한魅力을가진女性은
반드시幸福스럽다!
美와魅力이야말로貴女의靑春을
明朗하게하는
幸福하게하는

和裝에나洋裝에는참으로꼭마치되는굉장한個性的魅力을發揮하는、白粉과 크림과 化粧水의綜合作用을갓고、絶對로化粧이밀니지안는理想品、街頭에오피스에家庭에多忙한일을가지신女性에가장適切한스피-드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七色
얼골빗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됨
一般婦人에는……白色
얼골하연분에는……白色
얼골파리한분에는……淡紅色
얼골거문분에는……早熟色
얼골창백한분에는……黃味色
얼골붉은분에는……新鮮色
[illegible]的美容에는……明朗色
(定價各色一個)三十錢

日本總發賣元 丸見屋 宇野達之助商會 東京·大阪 定價(各色一個)六十錢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란의姉妹品으로서의 美를보담效果的으로맨드는 純良無鉛 芳香優雅 粉白粉과
가든 粉이날지안코, 손쉬이美麗한化粧이됨니다

戲曲 春香傳 (三三)

【禁無斷上演】

柳致眞 脚色

李夢 ……서방님만 한번 보면 고대죽어도 한이없겟 가려 나만 보고나니 더살고십네…… 살고 싶어…….

(間)

(營門下는데서 四號 讀哭 主하게 主를 둔다. 아까 金의으려갓던 營門丁은 작혹처헤가지고 들어온다. 營門丁에들어서더니 서로 붓들고 한자리에 쓰러진다)

營門丁 (쓰러진다가다시 이러서려하며) 아- 잘 잘해본는 無사려평한 섯세로고나 (도- 鑑히쓰려 간다)

第三幕 第三場

【登場人物】

月　梅
春　香
香　丹
李 夢 龍
이웃 村婦
이웃 老人
洞里 下人
許 봉 사
오입쟁이一
오입쟁이二
오입쟁이三
老　婆
女　子
며 누 리

其外 求景꾼, 동장가는 府中婦女들, 軍牢, 執事 刑吏 三十名.

【場面】

舞臺는 監營獄의 一部。 東軒의 담속으로通한 길이다。 한편 담속으로 丹靑한 監營獄이 오는데 조올고잇다。

監營의 東日아 參 이날은 本官使道 생신이라 隣近各邑守令이 모여드노라고 南原읍內를 들는데 더구나 그잔치끄테 春香이를 죽인다는 소문은 南原一帶를 발칵 뒤집은듯 府中은 勿論이오 近邑에서 모혀드는 求景꾼 나드리옷들을 입고 三三五五舞臺를 잣춘가리 지내간다。

멀리 東軒서 들리는 風樂소리는 年會를 자랑하듯 求景꾼을 재촉한다。

軍服한 軍卒 三四人은 거지꼴을하야 언덕에서 四方을 살핀다。그中에 섯긴 中房。

中房 어쩌된 일일까? 오늘아츰에 이광한루에 대령하라는 떠지던데。

軍卒甲 (뒤지를 주머니에서 내여보고) 틀님업다 광한루 동대라 하엿다。

軍卒乙 저이들이 어사스도보다 한거름 먼저 나와잇는지오。

中房 아니다。그럴리는 업슬것이다。저편으로 가보자。너는 여기서 망을 보아라。

(軍卒乙은 언덕한구석에서 망을본다。그外 軍卒은 中房을 따라 언덕뒤로 사라진다。三三五五지내가는 求景꾼中에서 오입쟁이로 지펴 젊은 사람들 數三人—)

오입쟁이一 여보 내말 드러보게。 도대체 사람 죽는것이 무엇이 구경인가?。

오입쟁이二 죽는게 구경이아니라 이번에는 죽이는게 구경일세。

오입쟁이一 그만두게성사

오입쟁이三 자네는 춘향이 얼굴만 한번떠보면 죽어도 소원이 업겟다고。그러지안헛는가? 자, 우리들언제 서잇다가 그변 구경한번 해 하세。

오입쟁이一 에그 그만둘세! 수절하다가 죽는 그까짓년이 무슨 구경이람!

오입쟁이二 수절할려다가 죽는다면도 죽는년이러니와 죽인다고 죽이는자도 우습지안혼가 어떤구경은 일생을 두고도 업네。

오입쟁이三 여기까지 오긴해 보고가세。

(오입쟁이三은 一을 끌을고 나간다。女子, 老婆와등。老婆는 女子의뒤에 떠러저서 떨어오느라고 헤주어린다)

女子 (뒤를돌아보고) 어머님은 오시오 에그 어머니때문에 조흔구경다노치겟구려。

老婆 ……빨으니까 마음만 압서지, 어디 다리가 말을드러주야지 휴우— 젊은지랄하고는 아예 가려 나왓지야니로고나。어디 당초에 떨어갈수가 잇나。(지팡이에 엇는바위에 안저버린다。)

女子 에그머니!

老婆 나는 쉬엿다 가야겟다。

女子 춘향이 죽는구경하라다가 어머님것 몬저 죽겟고나。

女子 저쭉에소리 들어보오 오늘잔치는 여간 굉장한게 아닌가봐요。

老婆 늙은이사도 생신인데 배라게 즐거가다더라。

女子 우리집에서는 저번에 면임(官任)이와서 할 일없이 떨어면려고 떠구나 이번에는 집집마다 분동해서 쌀과돈을 수명주두필하고 돈이백양하고… 그러케 바더갓서요。

(이때 며누리 춤춰가며 노로 지내가려한다)

며누리 에그 어머니 여기서 무얼을 하오?

老婆 손자며누리까지 나왓고나

女子 집을 비어 노코 웨 나와다?

文藝時評

浪漫인가寫實인가? ―今月創作의吟味― ⑦

白鐵

李箕永氏의 「賭博」(朝光)은 今月과 가티 大部分의 作品이 豫期에 反하야 讀者를 失望케하는 가운데도 그 程度가 더욱 甚한 作品이라는 意味에서 몬저 그 責任을 作者에 反問하려고 한다!

作者는 이作品가운데서 現代의 悲劇을 그리려고 햇슬는지 모른다! 當然한

意 圖엿다! 하나 作者가 到達한 境地는 悲劇의 世界가 아니고 意外로 近世의 卑俗한 感傷界엿다! 卑俗한 感傷界라는것은 이 作品에 나타난 新派的 人情悲劇의 感傷味와 文學의 正統的 悲劇의 精神과를 混同하리 만치 그 作家의 感覺은 호린 作家일까? 그러라 고는 勿論 생각할수 업서 다 그러 까닭에 나는 한번은 이 作品은 다만 李箕永氏의 일홈을 빌린것 뿐이요, 그 實際의 作者는 어떤 新小說을 多讀한 文學靑年이라고 想像해보기까지 하엿다 『故鄕』이 요즘 一部에서 喧傳되고 잇는 바와 가티 傑作이 아니라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야도 그 作品가운데서 우리들은 作品의 분위기를 全面에서 統一하는 巨大한 想像力과 暗示力이 缺如되여잇는 것을 到處에서 發見한다고 하얏다 何如든 場面場面 가운데 그

特 殊한 리얼리스틱한 描寫의 妙境을 보여주는 빗나는 作家의 才能을 미상불 感服하엿다 그리고 이『故鄕』과는 對立되는 것으로 完成된『人間修業』의 發表된 部分에서도 그 확실한 筆致에 무거운 理性哲學을 加해가는 場面等에서 이 作家의 發展을 祈願하는 나의 幸福한 混斷이엿든가?

前月評中에서 나는 『流線型』에 대하야 不滿을 말하엿이 잇거니와 나는 그 作品에 대하야 좀더 讀足해서야 할는지 모르다 나는 그 不滿가운데서 너무 이 作家의 다음作品을 크게 期待햇든것이 不可하엿든지? …… 勿論 天才的 作家라도 잇다금 失敗하는 때가 잇다는 것을 考慮하지 안는 바는 아니다! 하나 여기서는 境遇가 달으다 數年間을 沈默가운데 文學을 探究해온 이 作家의 처음 發表하는 短篇들이 아닌가! 그것도 한作品이 아니고 나어서 發表하는 두가지 短篇이 이러한 馱作일때에 나는 더할말이 업다! 다만

良 心잇는 이 作家의 길흔 反省과 後悔를 要求하는데서 여기의 不滿을 制限해야 할까?

이 失敗의 作品에 대하야 本來부터 나는 그 具體的 內容을 一一히 吟味할 熱意를 갓고잇지 못하나 그代身 몬저 말하든 悲劇精神의 분위기를 어느 程度까지 延長해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亦是 여기서도 너무 隔遠된 그 浪漫의 主題에 얼마끔 接近하기 위하야서라도 그것이 必要할 것 갓다!

悲劇의 精神이 人情悲劇의 平凡한 感傷과 哀愁와 不幸과 悲慘이 아닌것은 勿論이다! 그것은 단순히 人間의 生活을 感傷的으로 誇張한것도 아니고 그것의 단순한 模倣도 아니오 그 普通生活보다도 훨신 깁흔 底面을 通過하고 잇는것이다 가사로 作品上에 表示된 그

構 話가 日常世事의 悲話를 여근것 가티 보일때에도 그것은 몬저 말한 그 底面 깁흔 根底에서 오는 表面的 事件이여야 한다 그럼으로 眞正한 悲劇은 生活의 表面을 흘르는 人情悲劇의 感傷과 不幸이 아니고 그 不幸과 感傷의 저편에서 人間을 淨化하는 精神, 普通生活의 水準을 眞實한 理想의 世界까지 昇華식히는 精神이여야 할것이다 여기서 悲劇의 探求를 위하야 希臘의 悲劇을 더듬고 近代의 『니체』의 悲劇精神을 追求할수는 本來부터 不可能한 일이어니와 다만 眞實한 意味의 悲劇精神이 『쇼펜하엘』等이 니르는 바 온갓 悲劇에 그 高揚을 위한 獨特한 衝動을 賦與하는 것은 世界와 人生이 아무 眞實한 滿足을 줄수 업다는 것 따라서 우리들은 아무 愛着을 가지고 잇슬필요가 업다는 認識을 어들때다! 그 認識가운데 悲劇的 精神이 成立된다 그럼으로 그것은 人間을 斷念에 引導한다는 것이 아닌것 만은 明確히 指摘해야 할줄안다 悲劇의 精神을 다만 運命劇의

諦 念과 體驗식혀서 理解하려는 것은 勿論 어리석은 일이다 斷念이 아니고 積極的으로 生活의 價値를 理解하는 까닭에 또한 새時代의 生活에 參加하려는 精神인 까닭에 그것이 가지는 苦悶, 말하면 그 새시대에 參加하려는 積極的 精神이 그理想이 現代의 不幸한 場面, 그 人間的 惡과 相剋되는데서 招來되는 倫理的 價値까지 到達하는 것이라 할것이다! 이때에잇서 또한 그 理想과 現實의 相違에서오는 人間精神이 倫理的價値에 到達할때에 그 悲劇은 그 相剋을 理解 失望하는 단순한 悲劇의 精神이 아니고 그것을 압흐로 끌울고 나가는 로맨티시즘의 精神일 도 快히 理解할수 잇다 健全한 로맨티시즘으로서의 悲劇 여기에 現代에 追求할 眞正한 悲劇의 精神이 잇는것이다。

學藝小考

音樂專門雜誌『音樂評論』創刊

一、四月十日頃
一、編輯 金 管
一、事務所 京城府茶屋町五 (電話本局 一〇二六)

陽春路程記

【그림자】

春日도 고요하다。湖畔냄새는 더한층 향긔롭지!

『아스팔트』우에 조으는 街路樹의 그림자는 南國을 그리는 鄕愁에 따려 햇는가?

石造建物의 욱어진 森林속에 너혼자만이 그윽한 都市의 畵幀이다。

人間學第二序論 ―人間의存在에對하야― ⑩

金基錫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러날 때 그것은 한개의 事實인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 事實은 바람이나 물결에대하야 한개의 現實로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람이나, 물결에대하야서가 아니라 그속에서 그것을 치려야 하는 人間에게대하야 한개의

現 實로주어진다 우리들은 여기서 行爲의 現實性을 외어야하고 現實의 行爲性을 외어야한다. 『現實的인것은 理性的, 理性的인것은 現實的』이라는 『헤-겔』의 命題를 『現實的인것은 行爲的, 行爲的인것은 現實的』이라는 새로운 命題로밧고아본다. 行爲를 가지는일은 人간을 가지는 일이다

人間의 行爲에잇서서 자기를 다른存在로부터구별할때 人間은 자기에게주어지는事實을 바로經驗하지안허서는안된다. 人間은行爲를가지는일에잇서서 現實을부단히 擔當해야하는 한개의課題의世界에드러선다。우리들은 人間을 存在로規定했다。人間은存在에잇서서 자기를다시『生』을가지는 存在로 限定한다。人間은『生』의秩序속에서 자기를다시課題를가지는存在로限定한다。우리들은 人間에게서 存在의世界를외오고『生』의世界를외오고 그리고 課題의世界를외온다 人間學은 存在學이면서 『生의學』이면서 나아가 人間의課題의學이되지안허서는안된다。우리들은 여기서『월레트』의

人 間學이니 『하이데게르』의 存在學이니하는것이 진실한人間學 진실한存在學이되기위하야는 아직도아득한 前途를가지고잇슴을본다。

『헤-겔』은 存在를『發展의論理』에잇서서 說明한다。『헤-겔』은 어떤絶對者로서理性이 자기를無限히發展식힌다고본다。絶對的理性은純粹한槪念가運것에서 자기를 即自的으로 措定하고 純粹槪念은 具體的인것이되기위하야 그자신의對自인 自然은 他在態에잇어서의 精神에 지나지안는다。그런데自然은다시 現實的인것이되기위하야 即自的=對自的인 絶對的精神에로止揚된다。이리하야『헤-겔』에게잇서서 世界는 이이른바 絶對的理性의 自己發展過程이여고 絶對者의自己發展으로 發展의論理」에依한 辨證法的圓環運動이여던것이다。

우리들은 이『헤-겔』的思惟가 現代의思惟속에 깁히浸潤되여잇슴을본다。그속에는 만흔 改削이잇기는 잇다。그러나 現代의思惟는依然히『헤-겔』的思惟에依하야代表된다。우리들은『헤-겔』的

絶 對的理性이란것을의심하고 그리고 存在의世界가 『發展의論理』에잇서서 바르게說明될것인가를의심한다。現代에잇서서의 人間의全思惟의領野에미처 『發展의論理』를 謳歌하는 소리가놉흔지금에 우리들은 우리들자신의 『限定의論理』를 정성드려 세워야할것이아닐가。(끗)

―尋牛莊散詩―(二)―

萬海

＝山居＝

띄끌세상을 떠나면
모든것을 잇는다 하기에
산을깨거 집을짓고
들을뚫어 샘을 파다
구름은 손이양하야
스스로 왓다 스스로가고
달은 파수꾼도 아니언만
밤을새워 문을 지킨다
새소리를 노래라하고
솔-바람을 거문고라 하는것은
옛사람의 두고쓰는 말이다
× × ×
님기루어 잠못니루는
오고 가지안는 근심은
오직 작은 벼개가 알뿐이다
× × ×
空山의 寂寞이어
어대서 한가한 근심을 가져오는가
차라리 杜鵑聲도 업시
고요히 근심을 가저오는
오오 空山의 寂寞이어

＝산：골：물＝

산골물아
어대서 나서 어대로 가는가
무슨일로 그리 쉬지안코 가는가
가면 다시 오라는가 아니오라는가
× × ×
물은 아모말도 업시
수업시 얼크러진 등 덩당이 허던
돌 숙으로
저오던은 넘어가고
큰돌은 도라가면서
쫄쫄 쫄쫄 쇄 소리가
南岸靑山에 反響한다
× × ×
그러면
산에서 나서 바다에 이르는 成功의
秘訣이
이러타는 말인가
물이야 무슨마음이 잇스랴마는
世間의 劣敗者인 나는
이러케 說法을 듯노라

物理學上으로본 宇宙線 ⑤

…延專敎授 崔奎南

一九二六年에 처음으로 氏가 自己의 實驗한結果를 世上에 發表함으로 米國이나 유롭物理界에 一大센세이슌을 이르켯스며 여러學者들은 實驗과研究에 着手하엿다 그러나 氏가 此宇宙線을 처음으로 發明한것은아니요 여러가지 千辛萬苦를 무릅쓰고 實驗한結果로 此宇宙의 存在만은

鞏固 하게 하엿다 獨逸學者 『골헤스터』는 알프스山上에다氷塊實驗室을짓고 실험해본後에말하기를 宇宙線은 蒼天에 存在하며 멀고먼 星間 (interstellar space)으로부터온다고하엿다 밀이켄氏는 第二次로『봉이비아』와 『가나다』에 잇는高山中에서 研究를 繼續하엿스며『레겐너』氏는 스위쓰랜드에잇는 컨쓰탄쓰湖水속 七百七十五呎下에 實驗器具를 裝置한後 實驗해보든 果에 亦是카스미線을 發見하엿다

그런즉 이와가티 만흔學者들의 實驗的研究로因하야 現科學界에서는 이宇宙線의 存在만은 否認치못할 事實이러니와 남은問題는 이宇宙線이 어데로부터오며 또는무엇으로 組成되엿는냐 하는것이다 이問題를 圓滿히解決하는것은 그리케 容易한일이 아니다 甲은 自己의

學說 이올타고 主張하고 乙은丙의것을 論駁한다 그러나筆者가 가장 有力하다고 밋는밀이켄氏와컴프톤(Compton)氏의學說을 紹介코저한다

밀이켄氏는 主張하되 이宇宙線은 저멀고먼! 星間으로부터 오는 波長이 至極히 短한 輻射波인데 數呎의 두꺼운鉛을 能히 透過할수잇다고 하엿다 뿐마線에近似하나 그勢力(energy)은 幾百倍나 더强하다고한다 二千五百萬볼트 乃至四億볼트의勢力을 가젓다고 말하엿다 이世上 모든物質은 電子와 푸로탄(Proton)으로 組成되엿다 理論上으로 말하면 電子와 푸로탄만 가지면 무슨 物質이든지 우리가 願하는대로 創造할수가잇을것이다 例컨대 水素原子는 電子一개와 푸로탄一개로 組成되엿고 헬이엄은 電子四個와 푸로탄四個로 組織되엿다 換言하면 水素原子四個가合하야 헬이엄原子一個가되엿다 그런즉 理論上으로 헬이엄原子의質量은 水素原子의 四倍가될것이다 그러나

實際 에잇서서 헬이엄原子의 質量은 水素原子의三、九七倍이니 그剩餘의質量 即 水素原子의 〇、〇三은 무엇으로 變하엿느냐가 問題이다 아인스타인의 相對性理論에 依하면 質量이 고勢力이라고하엿다 그러면 어떤物質量 〇、〇三은 輻射에너지로 變할수가잇나니 輻射에너지가곳 宇宙線의 起源이라는것이 밀이켄氏學說이다 그러나 이水素原子質量의〇、〇三에 該當한輻射波는 最低透過力을가진 宇宙線보다도 透過力이 微弱하다 그러나 水素原子 百二十九個가 集合하야 一個의『Xenon』原子가 생길때에는 水素原子의質量에 該當한 輻射波가 發射되나니 이는 곳 透過力이第二位인 宇宙線에 該當한것이다 저멀고먼— 星間에는 幾億萬의電子와 푸로탄이 浮游한다 浮游타가 適當한 比例로 集合하면 새 物質이 成生되는 同時에 此宇宙線이 發射된다는 말이다。換言하면 宇宙線은 新物質成生에 副産物이라는말이다 要컨대 宇宙線은

簡單 하고 가벼운 原子로부터 複雜하고 무거운 原子를 造成하는 過程에서 起源되나니 이宇宙를 創造하신 造物主는 無始無終의 일(Work)를 繼續하고 잇다는 暗示가 아닐가한다

獨逸學者 콜회스터(Kolhoster)와 뻐터(Bothe)는 말하되 宇宙線은 速度가 非常히 빠른電子로 造成되엿다고 하엿다。그러나 밀이켄은 이 學說을 反對하엿다。萬一 두 獨逸學者의 主張대로 實로 宇宙線이 電子의 集合體라면 宇宙線은 地磁氣力의 影響을 바들것이다 即 南北極 附近에서는 地力線의 方向대로 떠러질것이오 따라서 그 强度가 赤道附近보다 强할것이다

太陽熱無色

「큐-바」州의 어느農事試驗場에서『쏘데우릴드』라는 黃色光線으로서 藷麥類의 穀物을 培養해 보앗든바、太陽光線보담도 훨신더 效果的이엿다 고한다 (寫眞은 그實驗光景)

新刊紹介

▲高麗時報 第三十九號(月二回發行)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主日學校申報 第六十七號(月刊)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發行 振替京城一四六三八番 定價一部四錢

▲哲學論叢 京城帝國大學文學會編纂第三輯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二丁目五 大阪屋號書店發行 定價一圓二十錢 發賣所 京城府本町一丁目二八 京城大阪屋號書店 振替京城二五七二番

▲日本文學研究 京城帝國大學文學會編纂第一輯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二丁目五 大阪屋號書店發行 定價一圓六十錢 發賣所 京城府本町一丁目二八 京城大阪屋號書店 振替京城二五七二番

▲野談 四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發行 振替京城一八三三八番 定價二十錢

▲朝鮮名作選集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社發行 振替京城二九四九番 定價一圓 送料十八錢

讀者交枝室

▲井邑郡井州邑二七 金在權氏께서 貴社로 附託하여 新聞紙上에 紹介하온

一、大正六年陰六月二十四日이陽曆으로 何月何日이며 또 月建日辰은무엇이며 또그날 寅時는 干이무엇이오리가

의問을 生이研究調査하야 左에 아르켜드립니다

陰大正六年六月二十四日은 陽大正六年八月十一日 土曜日 年은 丁巳生이요 月建은丁未요 日辰은乙酉요 當時의干은 戊寅요 右와如하옵나이다

全北井邑郡井州邑水城里五九五番地 全文在

▲卓球指導하시는 曹明煥氏住所를아시면 가리켜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 結婚은하시엿습니가? 市內一女性

▲求職! 저는今年十九歲인데普校卒業生이오며將來書籍商에뜻을 두고잇습으로 京城府內의 大書店에就職코저하오니 採用하여주시기바랍니다 卒業後商店에勤務한關係 商業에對한經驗은 좀잇습니다 뜻잇는先生님께서 左記住所로 店員待遇에對하야 詳細한片紙를하시면 곳上京하겟습니다 慶北盈德郡寧海邑 高永敎

▲本人은某君의代理인바 某君은目下 市內某高普三年優等生이랍니다 今般當者의家庭事情에依하야 普通學校五、六學年 或은 中學一年程度의 家庭敎師處를널리市內一圓及近郊外에 求한답니다 뜻이게신분은 左記住所로나 或은本欄으로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답니다 薄謝는如何든지할게 밧겟답니다 市內惠化洞一九八ノ二 黃壽完

▲漢藥짓는 店員을 求하오니 漢藥局에서 藥지어본 相當한經驗이잇는분은 則來談하시기를 바라나이다 (年齡은 十六歲以上二十五歲以內) 開城府池町一四六 忠橋藥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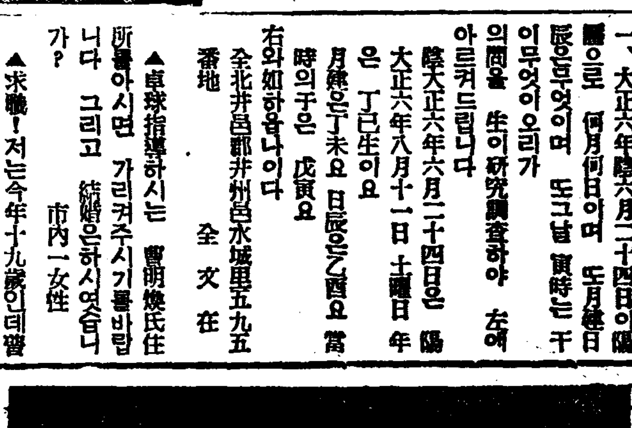
▲시베리아 近方에散在한 在留同胞의近況을 알고자하옴는바 海蔘威等地에서는 아방갈드其他 朝鮮文으로된 新聞雜誌等이 發行된다는바 住所其他가不明이옵기 其處事情을 知悉하시는분으로서 未安스럽으나 左記로 葉書一枚보내주시으면감사합니다 大山私立習文學院 戱影

▲生은 某中學卒業後俸給生活을하고잇사온데 貯蓄이多少(約七百圓)되엿슴으로 東京에가서 不足은苦學을하여가며 農大나農大專門部를단니고저 하온바 일즉이苦學의經驗이게신분께 事情을 問議하오니 下記住所로 通信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平北楚山郡城西洞二一六 文永善

春季에가장만흔 梅毒性의痴呆症

무서운腦梅毒을未然에防止

有力한腦梅內服療法



모-든人間은、疲勞하다고하는 것이안되는말이다。特히梅毒은、五體中에 가장過激히使用하는場所에菌毒의發生을보게되는것으로 例하면會社員、學生等、實業家腦를만히使用하는분은、腦梅毒에걸니기쉽고 또는筋肉을使用하는場所에勞働者나職工은、筋骨의梅毒筋、即骨에만남게되기쉽다。

痴呆症이만흔時

近頃特히腦梅毒患者가 만타고 하는것도、民衆一般이梅腦毒을만히 쓰게된結果라고볼수잇다、몸에一個의梅菌을保持하면、當然무서운 梅毒의腦擊을밧지안흐면안된다。梅毒이 오랜동안 體內에經過하게되면 直接腦組織을 破壞하든지 또는 그毒素에依하야 神經組織을害치게되든지 其他不良한 新陳代謝物質에依하야腦나脊髓의 實質에 慢性的 變化를이르키여드디여 癡呆症의 腦梅毒으로되든지 瘋呆症即 腦腦가날부게되든지 乃終에는脊髓癆等을이르키는일도만타

어째再發하는가

患者에 依하면 麻痺性痴呆症은 梅毒罹患後 速한것은 三年乃至 六七年만에 出現하야 甚한것은 十年만에 出現한다고 한다 그發生時期도 春季가가장만코 特히 最近 과가튼 不景氣 生活不安等에 追窮되야、飮酒等이 誘因되야發生되는때가만타。

勿論이와가튼惡性梅毒에걸니는 것은、治療法이合理的이못되든가 흑은 初期治療로、外面의梅毒斑狀이、意外로 빨리消失되서정말全治된것으로만밋고安心하고、그後의根本治療를거운니하엿기때문에再發되는것이흔하다 죽姑息的治療때문에、오히려病毒을腦部에潛伏식히는結果인것이다。

그런故로、梅毒은그 治療法에細心한注意를 要하며、潛伏하는毒素를體外로排泄하며、또한殺菌하는充分한藥效가잇는內服藥이아니면 안된다。

ベルッ丸은、腦梅內服藥으로서 널니알려진歷史的良劑인바只今에는世界的으로 年年히 그輸出額을 增加하는바、勿論이것은藥效가 確然함으로써 그信用이잇는것으로、予先服用에 對해서도

內服療法의自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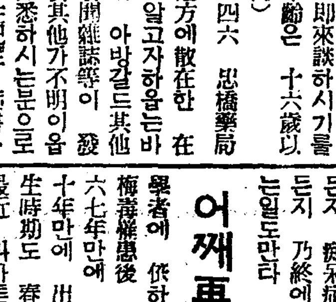
藥劑排泄力이强해서고、血液은 自然히淨化되야、毒素는 排泄되여體外로、尿와따라서腦梅毒等의 原因되는 不良의新陳代謝物質을排泄케하며、體腦組織을完全히、또한血液을保障하게되며 全身의活氣、皮膚의血色을恢復하야元氣를旺盛케하며、藥效는거지腦梅毒藥으로서의效果뿐아니라、實로多方面에效力을보게될것으로서、어대한患者에게나 歡喜한 歡迎을밧게된다。

實驗諸氏의歡喜

一般梅毒、骨毒、瘡毒、痳疾、冷毒、濕毒、遺傳梅毒、腦梅毒、脊髓癆、고무腫、痔瘻의皮膚病、부스름、여드름、腦軟化症、便秘等모—든梅毒性疾患의主에쓰여有効는 以上더말하고 經驗者는언제나服用後血液의檢査에依하야 그效果가 正確함에歡喜하야 繼續服用한다고하는現狀이다 現在무서운 腦病에苦悶하는분은 一日이라도速히ベルッ丸에依하야 徹底的腦梅療法을實現하라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腦毒、瘡毒、痳疾、濕毒、冷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두드러기、腫物、皮膚病、梅毒性보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諸히梅毒性疾患에良劾있슴。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徳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錢五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二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淸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濱町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ベルツ丸 應募標語 當選發表

一等 (五名 賞金 各十圓贈呈)
▲梅毒에는無言의名醫ベルツ丸 神奈川縣平塚町 根岸 狂步
▲愛兒의血을愛護키는ベルツ丸 廣島市白島九軒町 飯田 茂
▲勞働하면서服用되는ベルツ丸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內藤サト
▲ベルツ丸은健康人의護身藥 仙臺市越路町 渡邊 勇
▲梅毒이면못지말고ベルツ丸 福岡縣伊田町播磨 原やしを

二等 (十名 賞金 各五圓贈呈)
▲親情ベルツ丸으로子孫安心 東京市芝區新橋 鈴木キヨ子
▲優生時代의要求ベルツ丸 旭川市旭町 藤原 伸平
▲不注意해서腦梅毒에이처얌ベルツ丸 富山縣富山市三吉町 丸山 晴風
▲人蔘毒 毒에서救出할ベルツ丸 靑森縣 秀丘 更家紀之子
▲無毒의診察ベルツ丸의恩德 神戶市林田區濱山通 平松 信夫
▲恐?梅毒治療는ベルツ丸 千葉縣君津郡長浦村 在原 孝
▲最惡의梅毒에最善의ベルツ丸 愛媛縣宇和町兜達 山內 貞男
▲梅毒은 몰랐게되면 곳ベルツ丸 名古屋市南區熱田東町 森 貞雄
▲親은梅毒子는ベルツ丸으로優良兒 大分縣南海部郡八幡村 江畑 貴
▲梅毒體毒除毒에 맑게되는ベルツ丸 醫도血도 大阪市旭區千林町 松山 讓正

三等 (二十名 賞金 各三圓贈呈)
朝鮮群山▼大連市金▼東京市尾高桃水▼和歌山縣▼大阪市井上敬子▼東京市大熊貞子▼廣島縣內山茂樹▼東京市小池丈夫▼京都市京極兒▼靜岡縣山本榮▼滿洲國坂本▼靜岡市伊藤あきら▼東京市加島維三▼大阪市森山伊之助▼埼玉縣高島茂▼東京市根岸由利▼京都府高橋茂▼長野縣荒川雅光

四等 (四十五名 賞金 各二圓贈呈)
▼靜岡縣森泉花▼北海道石谷茂直▼福岡縣緒方國太郎▼大垣市岡崎兵三▼安東縣王家典▼靜岡縣佐野喜平▼東京市山本文二郎▼新潟縣山田鐵造▼大阪市山口國男▼和歌山縣神下館▼東京府村瀨▼樺太小野幸惠▼岡山縣畑地省朗▼東京市大野金次郞▼埼玉縣鹽川岡子▼京城府金鎬▼滿洲王錦生▼愛知縣宮崎義市▼靜岡市小林末吉▼仙臺市渡邊儀作▼北海道飛田義弘 [illegible]

◎以上當選の各位に對し賞金を贈呈致しました 右 鈴木日本製藥社 懸賞係

黃昏 【46】

韓雪野 作 / 安夕影 畫

음모 (四)

려순이가 잔을 따르는사이에 편지를 보고잇든 사장은, 볼거 업다는드시 편지를 죽찌저서 수지롱에 던지며

『몸이 웨 이러케덥까?』

하고 차따르든 려순의손을 번히 내려다본다.

『날세가 갑재기 더워저서』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윽히 려순을 아래위로 훑어보며 차ㅅ잔을 들든 사장은,

『앗, 따가워……』

하며 다시 차ㅅ잔을 내려놋는다.

미안한드시 애오라지 우숨을 띄이고 비스듬이 돌아선 려순은, 엷은 녀름옷을 입어서 늘신한 몸의 윤곽이 눈부시게 분명히 보인다. 힌속치마우에 하르르한 검정치마를 입어서 조곰만 움지겨도, 힌빛과 검은빛이 어우러저며 이상하게 아른아른해 보인다.

그리고 그손과 얼굴과 피부에서는, 그순진함과 그나이때가 아니면 불수업는 윤태과 건강과 혈색의『드리오』(三重奏)가 들리지 안는가?

그날 오후다.

려순은 다시 사장실로 불려들어갓다.

여태것 저혼자의생각을 이리 몰려보고 저리 번뒤처 본든사장은, 이제야 비로소 조흔 단안을 어든드시 우선우선한 얼굴로 천천히 말한다——

『려순이가 이회사에 들어오지가 몃달이 되지?』

려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녀달ㅅ재 됩니다』

하고 공손히 대답한다.

『하아, 발서 녀달?……웅, 그리 점 안즈시우』

『네……』

『상관업서 그리 점……』

『네』

하고 려순은, 그제야 두손으로 뒤ㅅ치마를 쓸며 단정히 의자에 걸친다.

『녀달이라?……』

『사월초순부터니까 만석달입니다』

『하하, 그런데 벌서 퍽 오래된것가튼데그래. 세월이란 참 빠른거야. 어느새 이러케 더워서 견딜수 업게되엇스니, 하하……』

하고 사장은 당배한대를 부처물며 말을 잇는다——

『회교엘 다니다가 별안간 이런델 오니까 매우 갑갑하지?』

『아니에요』

『허지만 임이 점 고된걸……아츰부터 석양까지 꼭 들어만 안젓스니까』

『그러나 무어 하는거라구 잇습니까. 그저 놀구만 잇든데요』

『천만에 그럴리가 잇소. 글쓰는거란 여간 정력이 드는거아닌데……』

『…………』

『잇다마큼 구찬은 생각이 날걸? 하하하……려순이 그러찬소?』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러나 아직 대우도 변변치 안쿠해서 난 여간 미안허지안탄말요……좌우간, 괴로운대로 얼마ㅅ동안만 더기다려 주시우 나도 생각하는바가 잇스니까』

사장은, 정말 하고싶은 말은 이만즘 잇스면서도, 위정 저만츰 먼장을 떠들어간다——

『헌데 사실 녀름 한철만은두구나 엇시 권태가 생긴단말야. 그러찬어? 려순이……』

『아니얘요. 그저 놀구잇는것보다……등 갑갑한줄을 모르겟서요』

『그럴 까닭이 잇소. 중의 문자가 아니라 삼천대천세게에마음가진 사람의 인정은 누구나 매일반 이라는 데……다른말할게 엇시 첫째 나보려도, 벌서 피서가고 십흔생각이 든단말야 하하하……』

『…………』

『그야 물론, 사람이란 누구든 가끔 휴양도 해야하는거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겟지……허니까 사실, 녀름 한철만은 사원에게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위로방법을 취해야겟서……단예컨대 씨이라도, 이를테면 휴가를 준다든지, 려행을 보낸다든지 하다못해 원로잔치를 보낸다든지……어째든 허기는 해야할일이야. 그러타고 물론 만흔 사원을 모조리 그럴수는 업겟지만……가령 말하자면 제일 업적이조코 근실한 사람으로 뽑아서 말이지……』

하고 사장은 벙그시 웃는다.

려순은 사장의 속맘을 모르느니만치, 그저 단순히 그럴드시만 생각되어서

『네』

하고 그말에 대하야 존경하는뜻을 표할뿐이다.

『가령 이를테면 려순이가튼사람 말야, 하하하……』

하고 사장은 크게 너털웃음을 치며 려순이를 빤히 건너다본다

朝鮮映畫의봄!

叢生簇出할作品

【下】 今年前半期만도多數

조선에 발성영화촬영소로 단 한곳인 경성촬영소에서는 리필우(李弼雨)씨이하 전촬영소원의 협성으로 임이『토-키-』촬영의 제반긔구가 완비되게되여 방금 착수한 홍길동전후편(洪吉童傳後篇)을 시험적작품의 최종막으로하고 본격적 토-키-예술연구의길로 나아가기위하야, 현대극을 제작코자 새긔계의 구입등 분주한데 임이아프로제작할 작품의『포란』이 서잇서 우선제이긔(第二期)의 첫출발의 긔념으로 춘풍(春風)에서 새명성을 어든 감독박긔채(朴基采)씨를 초빙하야 춘원리광수(春園李光洙)씨의 조선신문학사상(新文學史)에 처페지에 긔록할 소설무정(無情)을 리필우씨의 총지휘와 록음(錄音)에 리명우(李明雨)씨 촬영으로 사월중순부터 촬영을 개시 하리라한다

◇

또 이촬영소에는 요사히 근일조선신극계에서 촉망을갓든라웅(羅雄)씨영화계의중진인리경선(李慶善)김인규(金寅圭)량씨와 역습(逆襲)에 리금룡(李錦龍)씨등이 새로 드러가 토-키-연구를 하면서 출연키로 되엿스며 새로히 우(禹)양이 신진여배우로 드러갓다한다 이리하야 아프로 경성촬영소가 재이단적제작에 착수하엿슴으로과연 어떠한 결실을매질지 다만 이들의 노력여하에 잇슬것이다

또한가지는 캐메라맨 손용진(孫勇進)씨가 감독으로 작품을 제작코자 방금 준비중이라는데 아즉 비공식으로라도 발표되지안엇슴으로 다음긔회에 붓을 들기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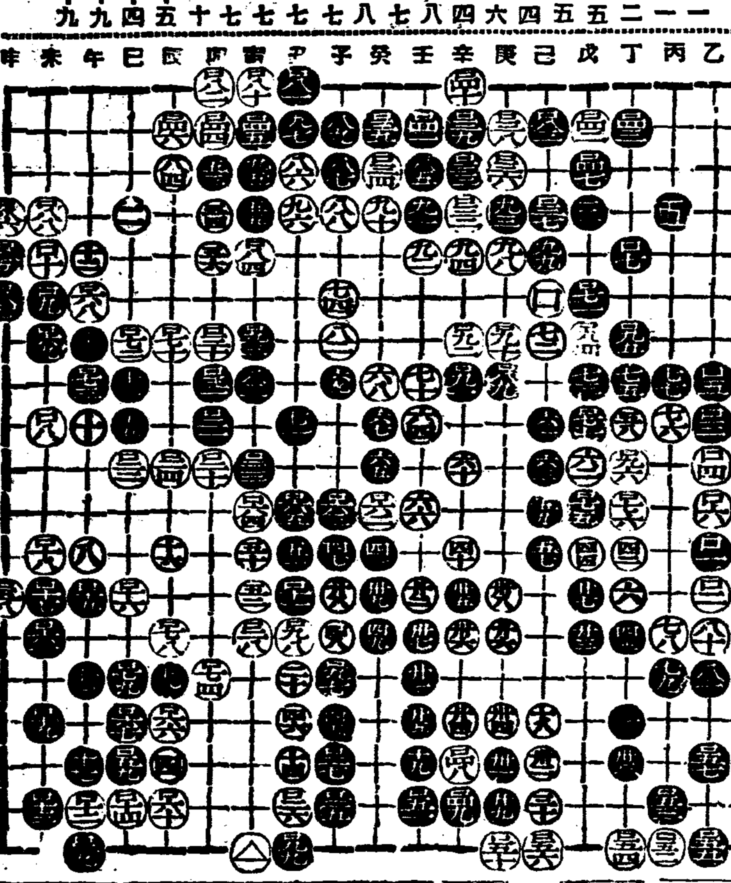
◇

『한영회사』라운규(羅雲奎)씨는 아리랑제삼편(아리랑第三篇)을 개작코자 동경으로 출발하엿다는데 사월하순경에 동키네마에서 상연하리라 하며 다음작품으로『바다업는』항구(港口)를 제작한다 하니 금년 여름안으로 수만흔 조선영화가 우리들의 시안에 부듸칠것이니 깃분일이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丁奎春 / 黑先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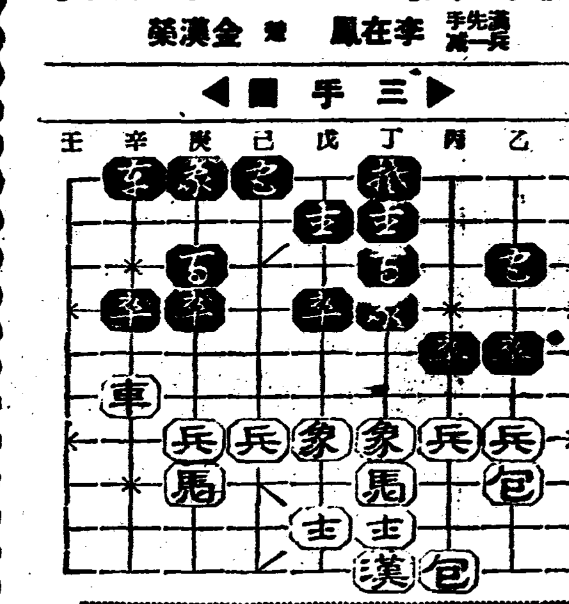
●一八一 丑의一 ○一八二 卯의一 ●一八三 己의二 ○一八四 寅의五 ●一八五 申의五 ○一八六 申의四 ●一八七 申의六 ○一八八 未의四 ●一八九 庚의八 ○一九〇 庚의七 ●一九一 辛의八 ○一九二 辛의七 ●一九三 寅의七 ○一九四 戌의七 ●一九五 丁의七 ○一九六 丁의十 ●一九七 子의十五 ○一九八 丑의十四 ●一九九 丑의十九 ○二〇〇 寅의十九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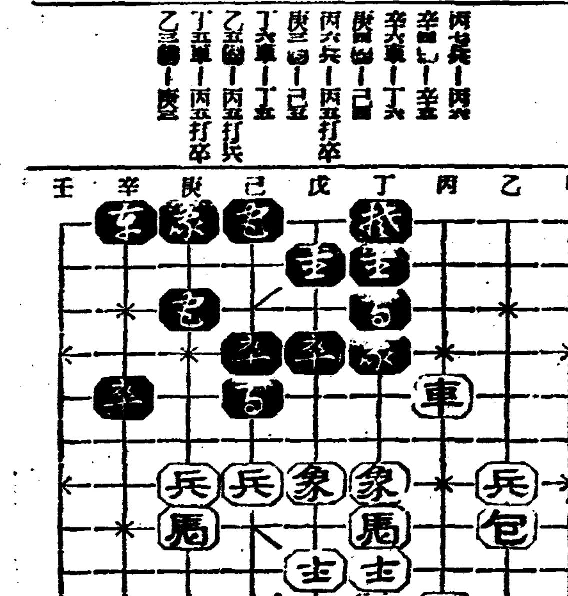
先手漢 李在鳳 對 金漢榮

◀圖手三▶



◀圖手十四▶

丙七兵—丙六 辛四[illegible]—辛二 辛六車—丁六 庚四包—己四 丙六兵—丙五打卒 庚三包—己五 丁六車—丁五 乙五包—丙五打兵 丁五車—丙五打卒 乙三包—庚三



라디오

二十六日(木曜)

◇午後六時 少女劇『希望의봄』全一景—金泰哲作—(配役) 錦順…劉眞愛 銀順(금순이동생)…鄭貝玉 눈(雪)(一)…劉根春 눈(雪)(二)…李恩順 나비…金鋼玉 봄女神…金鮮姬 外幾多數

두루미會 伴奏 두루미會伴奏會 指揮 金相德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世界名大學巡禮』(三) 金興濟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 崔南善

◇同八時(東) 管絃樂 新交響樂團 指揮山田耕作

◇同午後八時四五分 사설孔明歌 一、사설孔明歌 二、寧邊歌 三、긴난봉가 四、자진난봉가 五、개성난봉가 六、노래가락 白牧丹、柳開東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管絃樂

◇同八時四五分 小唄

◇同八時五五分 浪花節

二十七日(金曜)

◇午後零時五分(東) 토-키-中繼

◇同一時十分 合格者發表 (城大豫科、京城工業)

◇同三時一五分 通俗家庭講座(五) 金秩甫

◇同六時 이야기 崔泳柱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春郞과野外寫生 張勃

◇同七時三〇分 記念講演『國際聯盟脫退日을當하야』

◇八時 漫談『어느「이네리」의苦悶』 申不出

◇同八時三〇分 (大) 피아노獨奏『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레오니-트크로이처『一八三六年以後의피아노曲』 一、奏鳴曲……그리크作曲 二、메피스트왈쓰……리스트作曲 三、항가리아狂詩曲……第十五番……리스트作曲

◇同九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小春香歌 三、제비歌 張彩瓊 金桂順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어머니의講座

◇午後〇時五分(東) 토-키-中繼

◇同一時(大) 婦人의時間

◇同六時 童話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東) 連續라디오小說

◇同九時(東) 新日本音樂

二十八日(土曜)

◇午後〇時五分(東) 재즈

◇同三時一五分 家庭時間 幼兒의環境 李先根

◇同六時 吹奏樂 救世軍育兒院밴드 指揮 W、E、노-벨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同七時三〇分 講演『教育의理…』 咸尙勳

…曲』 피아노獨奏 鄭義澤

◇同八時一分(東) 室內樂『빠이올린피아노二重奏』 크로이처소나타-A長調作品四十七 베-토-벤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소스테누-토 (안단테그렛토) 第二樂章 안단테(變奏曲) 第三樂章 프레스토 피아노 리리、크라우스 빠이올린 시몬、골드베르그

◇同八時三六分 野談『[illegible]』 申秋岡

◇同九時六分 雜歌外 一、雜念 二、六字백이 三、개고리打令 四、興打令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 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東) 재즈

◇同二時 어머니時間

◇同六時 (大)連續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午後七時三〇分(東) 合唱

◇同八時〇一分(東) 室內樂

◇同八時三六分(東) 連續라디오小說

◇同九時 時事解說

曆

三月廿七日 (金)

三月建壬辰小(初五日) 戊申·土·鬼·執

●清明四月五日(舊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聖林春信

뒷드리히는가고 서부활극이재성

뒷드리히는 괴어히 파라마운트를 도망해 나오고 말앗다。파라마운트라고 말하는 이보담은 헐리우드가 실혀젓든지도 모른다。자세한 일은 모르겟스나만일 단순히 파라마운트와 루비취의 싸홈이라면 미국을 떠나 구주로 간다고 서두르지 안해도 조치 안헐까

마침 그 사건이 나기 바로전 그의 주연영화인 바람(願)이 봉절되얏섯다。그 영화는 그의 작품에 통으로 결핍되야 잇든 섹스、에필과 루비취의 독특한 맛이 상당히 들어 나는동시 카메라에도 새로운 점이 잇서차 떠어저가든 그의 아름을 회복시키기에 넉넉하얏다。그래서 그다음으로 루비취의감독으로『나는 병정을사랑한다』를 제작하게되야 각본도 이미 완성되고곳 시작할 준비도 다 되는동시 영화배상으로부터 성가신말성까지 문제까지 일이리키고잇섯다。그 말성으로 인하야 고만 뒷드리히로 하야금 헐리우드를 떠나게 한것이나 아닐찌?

그러타고 말하는것은 이전 쪽스사에 잇든 윌필드、시한이 쫀、이、오라손과 제휴해서 파라마운트사의 방계로 되야 가지고 뒷드리히의 작품을 배급한다는 것이다。그것을 반대키 위하야 루비취와 파라마운트의 싸홈이 일어나고 또그래서 뒷드리히와 파라마운트의 절연이 실현되든듯 십다。본래부터 파라마운트라곳은 구순하지 못한것이 늘결함이엇다。『老孃』은 主演者의關係로 될동말동하고 안·하딩은 알게오에서 꿋내뒤 영국으로 간다고 콜벨은 방금이십세긔폭스사에 매달려 잇고 하를드、로이드도『은하』의 결과를 보기전에는 다시계약을 맷지 못하겟다고 버틔고 잇다는등 모다 구순하게 지내지를 못한다。

×

헐리우드에는 서부활극이 다시 부활될 증조를 보이고 잇다。보통영화가 흥왕치 못하는 반면 서부극은 상당히 성공되는 모양으로 이만딸라이상만 드리어 맨든서부극으로는 손해를 결코 보지안는다고들 떠들고 잇다。메트로사에서는 적당한 배우만 잇다면 십만불이상이라도드리어 제작한다고 하야 쪼지 오브라이엔이 그리로 가지나 안나고까지 추칙한다。거번 파라마운트에서 싸게 맨들엇든 서부시리스도 상당한 리익을보이고 와나사에서는 녹데스티니、와이쓰、서、레인지」의재촬영을 게획한다고 한다。

본래 서부극은 세트가 전연업고 오족 배우의 수완에 딸아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그수완중에는 무엇보다 말을 잘타는것이 재일이다。그래서배우의 급료도 종비싸다。오브라이엔은 한영화의 출연료가일만오천불이엇는데 목하 이만오천불이나 달난다고한다

喜劇座誕生

今番 喜劇界의 重鎭으로 몃몃사람이 모이어 劇座란 劇團을 組織하얏는데 그들은 從來의 低劣한 氣風을 一掃하고 그 品格의 向上을 圖하야 努力하리라고 한다。그 誕生紀念의 第一回公演은 今月 二十六日부터 市內 東洋劇場에서 開始하리라는바 同劇座의 重要人物은 다음과 갓다

金景希 金元浩 宋門平 石臥佛 孫一平 金鐵一(以上男子) 金小島 尹順喜 姜言淑 李眞順 金小貞 尹才蘭(以上女子)

各學校入學試驗問題

平壤醫學專門學校代數

1、z－30ハtニ比例スル一數ト、ニ比例スル一數トノ和ナリ、今t=3ナルトキ、z=84ニシテ、t=4ナルトキz=110ナリト云フ。zヲ最小ナラシムルtノ實數値及ビ其ノzノ最小値ヲ求メヨ。

2、各項正ナル等比級數アリ。ソノ第9項ハ16ニシテ第13項ハ64ナリトス。此ノ級數ノ最初ヨリ第n項マデノ和ヲA＋B$\sqrt{2}$ナリトスルトキハ、最初ヨリ第n＋1項マデノ和ハ2B＋1＋A$\sqrt{2}$ナルコトヲ證明セヨ。ココニAトBトハ整數ヲ表ハス。

3、42×42×33、×……ガ1000000ヲ越ユルニハ幾ツノ因數ヲ取ル可キカ。但シlog2=0.30103トス。

幾何

1、與ヘラレタル鋭角三角形ニ內接スル矩形ノ中面積ノ最大ナルモノヲ求ム。

2、一ツノ圓トソノ二ツノ定直徑トアリ。コノ圓周上ノ任意ノ一點ヨリコレラノ直徑ヘ垂線ヲ下シソノ足ヲM,Nトス。然ラバ線分MNノ長サハ一定ナリ。

英語（其一）

(1) These mountains are so big that you could climb and climb without coming to the top of them.

(2) The great wave of emancipation which is now sweeping across the civilized world means nominally nothing more than that women should have the right to education, freedom to work, and political enfranchisement—nothing in short but the bare ordinary rights of an adult human creature in a civilized democratic state.

英語（其二）

(3) Strictly speaking, the actor is but one of the media of dramatic art. Being a live medium, he occupies what is, speaking strictly, a false position, the history of the drama in all its rises and declies is the history of the dramatist's sure eclipse by the actor.

(4) 近頃の平壤の目覺ましい發展は、將來の大工業都市を、豫想せしめるに足るものがあると思はれる。

化學（其一）

(1) 銀に濃硝酸を加へ熱する時生ずる化學變化の方程式を作り且反應に與かる各物質の分子數の算出法を示せ

(2) 次の反應を説明せよ

(イ) 硼砂球反應

(ロ) ビューレツト反應

化學（其二）

(3) 滴定法により醋酸の濃度を規定苛性曹達溶液を以て檢定せんとする時、指示藥(標示藥)としてその色の變化する點が酸性側にあるメチールオレンヂを用ひて宜しきか その良否の理由を説明せよ

(4) 水35gに過酸化水素1.1550gを溶解したものの氷點降下を測定せしに2.03度、であつたこれより過酸化水素の分子量を求めよ 但し水に就て氷點降下の常數は1.9とす

國語（其一）

一、左ノ文ヲ平易ナル口語ニテ解釋セヨ。

此の秋はいざなふ人さへあればいでや母をもをがみ妻子はらからにも逢はばやとて七月八日つとめて立ち出づ。此のあらましいふころ人人別れ惜しむとて唐大和の歌ひと百ばかりもあらむかしらそはこと物に記しつ。友垣のなごりなきにしもあらねどちぎりおく日數いくばくならねば先ずゝまるゝ心にはいたしとも思ほえず。

二、左ノ文ヲ解釋セヨ。

(イ)顏淵の清貧に憩ひしにならふもの今の世には雨夜の星なるべし。

(ロ)分にあらざるの福故なきの獲は即ち人生の諂穽なり。

(ハ)日暮れて道遠し。

國語（其二）

一、左ノ文中ノ傍線ノ部ヲ解釋セヨ。

(1)毀譽褒貶の海ともいふべき世の(2)中に生れながら、はかなき人の品定に頓着するは 初心の至なり。但し、必ず感謝して受くべきは惡評なり。人間は誰も自矜(3)の心あるを免れず。爲に衣著せぬ惡評を蒙ることなくば兎角善い氣になり易きものなり。人人(4)も初ありて中終なく、或は初中(5)ありて終な(し)きは、譏評の爲に其の德を虧らるゝもの多ければなり。

(1)

(2)

(3)

(4)

(5)

二、左ノ語句ノ片假名ノ部分ニ適當ノ漢字ヲ楷書ニテ其ノ右ニ記セ。

○、リユウトウダビに終る。

○、失敗のゼンゴサクをコウキウす。

○、ハねヲドりツマヅきタフる

○、タイド極めてアイマイなり

○、互にテイケイしてフンキウせる時局のシウシフに努力す

○、彼此互にムジユンドウチヤクす。

○、インジユンコソクのヘイフウを戒む。

○、アンチユウにモサクするがごとし。

○、ジヤウヂユウザグワこれを念とす。

○、國民精神作興のために詔書をクワンパツせられ、フクワハウジユウの習漸く萌しケイテウキゲキの風も亦生ずと御誡めになつた。

東星商業學校

國語科(イの一)

一、左の文の傍線のある部分を解釋せよ

君は籠を以て(イ)一家を成せる人なるに 數年の間一度も筆を取り給ひし事なし。我もとより(ロ)衣食の資をいとふにあらざれど(ハ)何時までもかく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 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 (ニ)技をふるひ給へ

(イ)

(ロ)

(ハ)

(ニ)

二、左の語の漢字に讀假名をつけよ

布く 鮮か 背く 狹める 略 一抱 井然 廉恥 一筋路 虐待する

三、左の語句のわけを書け

とりなし(

取込(

仕切る(

苦り切る(

百方畫策する(

四、左の漢字を用ひて熟語を作れ——各一づつ

吏( ) 悲( ) 烈( )

礎( ) 異( )

國語科(イノ二)

一、左ノ文ヲ讀ミ次ノ問ニ答ヘナサイ。

更に首を回らして南を望めば、大和平野の盡くる處はるかに畝傍山・耳成山・天の香久山の三山まゆの如く、其の南に一きは高く多武峰、吉野山の山山連なるを見る。げにや『めぐらせる青垣山に、こもれる 大和うるはし』と歌ひしにそむかず。

イ、まゆの如くトハドンナコトデスカ。

ロ、歷史上最モ有名ナ山ハドレデスカ。

ハ、右ノ文中ノ歌ハ誰ノ作デスカ。

ニ、歌ノ解釋ヲシナサイ。

答

イ、

ロ、

ハ、

ニ、

二、片假名ヲ漢字ニメナサイ。

ツカサどる(

クヅれる(

ナれる(

マヌカれる(

ウスい(

サトす(

アナドる(

ヤハラかい(

オギナふ(

ホトンど(

三、次ノ語ノ意義ヲ書キナサイ。

かしづく(

すげなく(

せめぐ(

そねむ(

ひしぐ(

四、短文ヲ作リナサイ。

早晩

さすがに

國語科 (ロ一)

一、左ノ文ヲ解釋シナサイ。

永い間、オリンピツク大會は歷史の彼方に追ひやられ、月桂樹かかぐはしい匂に、僅に昔を偲ばせてゐた。

二、左ノ文ノ□ノ中ニ適當ナ漢字ヲ入レナサイ。

漢字が□□から內地に傳はつたのは□□天皇の御代に百濟の學者□□が□□及び□□□を獻じたのに始まる。

三、次ノ漢字ノ音讀ヲ右側ニ、訓讀ヲ左側ニ記シナサイ。

背 涙 衞 暇 井

四、讀假名ヲツケナサイ。

健氣(雜木(流石(

成就(屏風(吹雪(

盤石(青海原(火傷(

御稜威(

五、左ノ語ノ意義ヲ書キナサイ。

ひるむ(なづむ(そそろ(

(きほふ(いとふ(

國語科 (ロの二)

一、左の文を讀み次の問に答へよ

京都東福寺の鼎州(てい)和尙が或日、山門內で松の落葉を一つ〳〵拾つてをられた。これを見た侍僧の一人が『お手づから 一つ〳〵お拾ひになるにも及びませぬ。どう せ後程掃かせますから。』と聲をかけた。和尙はつく〴〵と侍僧の顏を見て『今の言葉は修行する者の心持ではあるまい どうせなどと後を當にするやうではいかぬ。一つ拾へば一つだけきれいになるのぢや。』と戒められた。

掃除、言ひかへれば淸淨は實に此の心でなければならぬ。帚を持つた時にのみ掃除があるのではない。一塵の心にとまつた時その一塵を取去つて、淸淨となすところに眞の掃除がある。

問(イ)侍僧の言葉の中どれが最も和尙の耳に響いたらうか

(

(ロ)『此の心』とはどんな心か

(

二、左の語句のわけを書け

手に合はない (

滿を持して待つ (

肝を冷やす (

舌を卷く (

急 所 (

三、左の語句の片假名の部分を漢字で書け

ウガつ ( )

身をツヽしむ ( )

クハしい ( )

アマネク ( )

ユアミする ( )

ウキボリ ( )

イトマゴヒ ( )

クニモト ( )

コヽロヅカひ ( )

ゲクワイ ( )

四、左の語を用ひて短文をつくれ

かすめる (

せめて (

算術科 (一)

1、[9.7061−(5−3.1416)] 3.03×37＝ 答

2、$(1\frac{1}{2}+1\frac{1}{4}-1\frac{1}{8})\times4\frac{1}{2}\times(\frac{3}{10}+\frac{4}{5})\div\frac{1}{8}=$ 答

3、或仕事ヲナスニ4ヶ月ニ其ノ$\frac{2}{5}$ヲナシタ、尙幾ケ月ニテ之ヲ完成スルカ。(式、運算及ビ答) 答

4、甲乙丙ノ三數アリ、甲乙二數ノ和ハ57.4乙丙二數ノ和ハ32.5甲丙二數ノ和ハ40.3ナリ、三數各各幾ラカ。(式運算及ビ答)

答 甲—— 乙—— 丙——

5、金若干圓ヲ年一割ノ利率ニテ借リ、一年二ケ月後ニ元利合セテ335圓ヲ返ヘセリ、元金ヲ求メヨ。(式、運算及ビ答) 答

6、今日ハ何曜日カ。來年ノ今月今日ハ何曜日カ。(運算ト答) 答

7、原價ノ3割增ノ定價ヲ附ケタル品物ヲ定價ノ2割引ニテ賣ヒ3圓10錢ヲ拂ヒタリト云フ、此品物ノ原價ハ何程カ。錢未滿ハ四捨五入セヨ。(式、運算及ビ答) 答

8、或人林檎ヲ籠ニ入レテ買フニ19個ヲ入ルレバ1圓30錢トナリ25個ヲ入ルレバ1圓63錢ナリ、林檎一個及籠ノ價ヲ求メヨ。(式運算及ビ答)

答 林檎一個 籠ノ價

算術科 (二)

1、$7.65+17\times9-18-42.6\times\{(5.1-3)\div0.7\}=$ 答

2、$(1\frac{2}{5}+3\frac{1}{4})\times\frac{4}{31}+(3\frac{5}{6}-2.4+1\div\frac{7}{15})1\div1\frac{14}{15}=$ 答

3、$\frac{33}{55}+\frac{36}{48}+\frac{48}{120}-\frac{138}{180}=$ 答

4、光ノ進ム速サハ一秒ニツキ3億米デアル、太陽カラ來ル光ガ地球マデ至ルニハ8分18秒、北極星カラハ44年ヲ要スル、太陽ト地球、北極星ト地球トノ距離ハ幾粁トナルカ。(式、運算及ビ答)

答 太陽ト地球 北極星ト地球

5、或電氣株式會社ノ株券ヲ2割5分ノ利益配當ガアルモノト見込ミ50圓拂込ヲ125圓デ買ヘバ利廻リハ何程ナルカ。(式、運算及ビ答)答

6、年利一割四分六厘ハ日步幾ラカ。(式、運算及ビ答)答

7、94.2糎ノ周ヲ有スル圓ト正方形アリ、ソノ何レノ面積ガ何程大ナルカ。但シ小數點以下二位マデ求ムルコト。(式、運算及ビ答)答

中央高等普通學校

國語科(普) 第一日

(一) 左の文を讀んで次の問に答へなさい。

孔子は他人を正す前に先づおのれを正し近きより遠きに及すを以て其の主義とし。たり。『おのれを修めて人を安んず』とは彼が簡明に此の意をあらはせる語なり。かつて自らいはく『發憤しては食を忘れ、樂しんではうれひを忘れ、老の將に至らんとするを知らず』と。其の身を忘れ、よはひを忘れて、人生の爲に盡くしたる大聖の面目、よく此の語にあらはれたりといふべし。

(1)『おのれを正す』とは何を目あてとして正すのか。

答

(2)『其の主義』とは何をいふのか。

答

(3)孔子は何について發憤したり、樂しんだりしたのか。

答

(4)『此の語』の意味をくはしく說明しなさい

答

(5)『おのれを正し、近きより遠きに及す』本文中のこれと同じ意味の他の部分に傍線をひきなさい。

(二) 次の文の( )の中にそれぞれあてはまる假名を入れなさい

(イ)寫眞を添( )て印刷部に廻す。

(ロ)すつかり驚いてしま( )ました。

(ハ)青空にそび( )立つの雲

(ニ)先づ艦隊を率( )て伊勢灣に入る。

(ホ)纜索に身を托してよ( )上る。

(三) 次の語をつかつて短文を作りなさい。

しみじみ＝

ひしひし＝

すくすく＝

せいぜい＝

むくむく＝

(四) 次の( )の中に適當な漢字を入れてそれぞれ熟語をつくりなさい。

( )刀打。打明( )。檜( )臺。探( )客。大評( )。

(五) 次の文の傍線の所をその右に解釋しなさい。

(1)常には淋しい此の島も時ならぬ賑を呈する。

(2)日本女性のために萬丈の氣をはいたのも本大會である。

(3)ついぞ名も聞いたこともない。

(4)隊中きつての働き手である

(5)私共の手にあひません

國語科(普)第二日

(一) 次の(一)(二)(三)の歌はそれぞれ何を歌つてゐるか。(四)の例にならつて書きなさい。

(一)

我は海の子白波の
さわぐいそべの松原に
煙たなびくとまやこそ
我がなつかしき住家なれ

(二)

生れて潮に浴して
浪を子守の歌と聞き
千里寄せくる海の氣を
吸ひてわらべとなりにけり

(三)

高く鼻つくいその香に
不斷の花のかをりあり
なぎさの松に吹く風を
いみじき樂と我は聞く

(四)

丈餘のろかい操りて
行手定めぬ浪まくら
(海上の生活)

百尋、千尋海の底
遊びなれたる庭廣し

(二) 次の語に讀み假名をつけなさい。

今生 神秘 健氣 天晴 怪我

(三) 次の文の片假名を漢字に改めなさい。

實用方面も大いにカイタクされ旅客のユソウはもとよりユウビンブツや貨物のウンパンに用ひられ、魚群の搜索やキヨクチの探險にも利用されてゐる。

(四) 次の文を解釋しなさい。

この悠久な自然にして"ゆくりなくも彼の胸には"二十年前の昔がよみがへるのであつた

國語科(尋)第一日

(一) 左の文を讀んで次の問に答へなさい

孔子は他人を正す前に先づおのれを正し、近きより遠きに及すを以て其の主義としたり。『おのれを修めて人を安んず』とは彼が簡明に此の意をあらはせる語なり。かつて自らいはく、『發憤しては食を忘れ、樂しんではうれひを忘れ、老の將に至らんとするを知らず』と。其の身を忘れ、よはひを忘れて、人生の爲に盡くしたる大聖の面目、よく此の語にあらはれたりといふべし。

(1)『おのれを正す』とは何を目あてとして正すのか。

答

(2)『其の主義』とは何をいふのか。

答

(3) 孔子は何について發憤したり、樂しんだりしたのか。

答

(4)『此の語』の意味をくはしく說明しなさい。

答

(5)『おのれを正し、近きより遠きに及す』。本文中のこれと同じ意味の他の部分に傍線をひきなさい。

(二) 次の文の( )の中にそれぞれあてはまる假名を入れなさい

(イ) りつぱな建物がそび( )てゐる。

(ロ) 自分の始末のわるいことを考へて恥( )かしい。

(ハ) 一坪に二本も 三本も植( )る。

(ニ) 節帶の長さにた( )かねてゐた。

(ホ) 實驗室に閉( )こもる。

(三)次の語をつかつて短文を作りなさい。

(イ) うねうね＝

(ロ) あへぎあへぎ＝

(ハ) つらつら＝

(ニ) かねがね＝

(ホ) ほのぼの＝

(四) 次の( )の中に適當な漢字を入れてそれぞれ熟語をつくりなさい。

後( )生。好機( )。拔( )力 無( )爲( )想。眞意( )。

(五) 次の文の傍線の所を解釋しなさい。

1、先づ五十人の兵に旨をふくめて先發せしめた。

2、どことなく才氣がひらめいてゐる。

3、王は例の烈しい氣性から[illegible]り切つて言渡した。

4、寄るべなき海にさすらふ。

5、我にもあらず荒野の末にさまよひ出た。

時間延長에反對한 四百鑛夫解雇

突然일터일은그들의生途漠然

全南草南金鑛의處事

【光陽】전남광양군 초남광산(草南鑛山)의 로동시간 연장문제로 광내에서 종업하든 광부만 일시휴업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관게당국에서는 쌍방의 의견을 청취코 원만히해결을 구하고저 적극적 노력을하여왓스나 량방의태도는 추호도양보치안코 강경하야 결국회사측에서는 휴업을단행한 인부전부 四백여명을 해고식혓슴으로 사백여명인부들은 일터를 이러버리여 그들의전도가 막연하다는데 일홍로회사에서는 소요인부와숙련인부만은 다른광산에서 고입할예정이라고한다

傳道事業을爲해 一萬圓을喜捨

熊川朱祥秀氏

【鎭海】진해(鎭海)웅천(熊川)지방의 야소교회를 비롯하야 웅동(熊東)、웅남(熊南)、상남(上南)등지에 산재한 각교회와 김해(金海)일대의 각교회의련합으로 지금으로부터 이십오주년전에 복음전도회(福音傳道會)를조직하고 각방면으로 전도에주력하여오든바 금번이주 동회창립이십오주년에 해당함으로 동회에서는 이이십오주년기념사업으로 전도사업을 일층확장하야전도의범위를 널펴서 경남지방과멀리 만주(滿洲)지방까지의 전도를 목표하고 만주에는 목사일명을 파송케하고 경남지방에는 전도사 일명을 두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자본금의 총액을 이만원으로정하고 사업을 착착진행중이라는데 이에대하야 웅천교회의 장로(長老)주상수(朱祥秀)씨는 현금만원을 내게되얏다는데 동회에서는이를긔초로하야 부족자금은동회의 소속교회급 교인들이분담케될터이라는데 일반교인들은전긔주씨의 성의에 대하야 칭송하야마지안는다

全州府新年度豫算 十九萬七千餘圓

新規事業도여러가지

【全州】신년도 전주부일반경제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할 제사회전주부회는 지난 이십사일오전열시반에 개회하엿다 예산총액은십구만칠천오백원으로 전년도에비하면 일만이백칠십삼원이 증가되엿스며 신입년도 신사업을드든면 다음과갓다

◇道路補裝及改修

▲本町에서完山橋

▲大正町四、五、丁目

▲南門에서 全州橋와法院前

이상도로는 금년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 하리라하여 대정정칠정목 연장선과 대정정 오정목에서 녀자보교까지의 도로는 개수하고 역전(驛前)에서 전태선(全太線)에 련락하는 도로를 신설하리라한다

▲市場增改築 총경비 이만오천칠백원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점포를 신축하야 배수구와 도로등 모든설비를 완비코저 금년부터 부영으로 착수키로 하엿다고한다

▲隔離病舍改築 방금 로송정(老松町)부근인가에접근하여잇는 격리병사는 부근주민의 이전운동이 맹열하던관계상 현전주병원구내에 병사일동(病舍一棟)을건축하야 의무입원을 도립의원에 위탁키로하엿다한다

▲水道擴張 음료부터한수량을 먹는것은 부민위생상못치못하다하야 금년도에 이백사십여톤의 배수관을 연장하고동시에 수도료를 저렴케하리라한다

▲墓地整理 현재 경양리(景陽里)와화산정(華山町)에잇는공동묘지가 협착하야 그동안 묘지사용자의 고통이만튼중 금년도에 칠백이십원예산으로 묘지정리를 시행하리라한다

平壤放送局 開設準備進捗

【平壤】평양JBK방송국은대동군오야리(大同郡梧野里)에설치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사일 정식으로 평양방송국시설 본방송(平壤放送局施設本放送)이 인가되엿스므로 동방송협회에서는 기술부장이 출장하여 목하 오야리(梧野里)에서 기술적 조사를 행하고잇다 한다

京仁鐵道複線運動

仁川府會席上에서緊急動議로

促進運動을一致可決

【仁川】십일년도 인천부예산회의 제오일인지난 이십사일회의 진행 중길강(吉岡)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로써 경인 각종산업의장려와 각종시설을 촉진키로하되 현재 십사왕복을하고잇는 경인철도는 차마다 초만원을 일우고 잇서 현재의교통 기관만으로는 제반문화발달상 적지안흔 지장을 일으킬것을말한후 아래의두조건을들어 총독부에 촉진운동을 마자읍지로 결의되엿다

一、京仁鐵道複線敷設의件

二、仁川市區擴張緊急實施의件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의하나인 서공원(西公園)에잇는 산십(山十)번지를 매입하야 제반시설을정비케한후 일층은 '호ー르'를만드러 일반의결혼식장과 또는연회장으로 공개하며 이층은 경성에잇는조선식호텔식으로 각종요리를 수용하야 경성등지의 피서객에게 제공키로하얏다한다

群山支廳刑事部 合議制昇格運動

法務局長來群機會에

【群山】군산법원지청(群山法院支廳)은 대정십일년 칠월일일에 민사(民事)부의 합의제(合議制)실시이래 약십사년간에 관할구역이 매화장을하얏슴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형사(刑事)합의제가 실시되지 못하얏슴은 호남의웅도인 군산으로서 체면문제인동시에 실제에 잇서서도 불편이 막심함으로 군산유지간에는 형사부합의제 실현에대하야 각각물의가 잇서오든중 오는 이십칠일경에 증영(增永)법무국장이 래군하게되는바 그시에 형사합의부 승격요망에대한 진정을 하기로하고 목하 그 진정방법을준비중이라한다

漣川郡下에火災 四棟이全半燒

【漣川】지난이십사일오후십이시반경에 련천군중면삼곳리(漣川郡中面三串里) 삼백칠번지 박창근(朴昌根)집에서 불이나서 마침 방풍이 심하엿슴으로 부근에 연소함을 면치못하야 동면사무소 재소에서 본서에 전화하엿슴으로 련천소방조원이 현장에 출동하야진화에진력한결과 오후삼시경에진화되엿는데 전소가일호반소가 삼호로서 손해액은 방금 조사중이라한다

永興地方重大懸案 農校期成會組織

各界有志總網羅로

【永興】조선사람으로서 교육열이 왕성하야가는것은 현저한사실로서 신학긔를 당하면 조선어느지방을 물론하고 학년연장학급증설등 운동이 맹렬한 현상이다 초등교 입학난에 잇서서는 더말할여지도 업거니와 보교를졸업하고 중등학교 시험지옥에서 신음하다가 목적을 달치못하고 가두에 방황하는 어린아동은 영흥에서도 수천여명을헤아릴수잇는 현상이다 교육기관이불완전한 영흥사회에잇서서 이런비상시긔를 당한 지방유지들은수년전 현안으로 지금까지 미루워오든 중등농업학교 긔성회를 지난이십삼일에 홍인면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상의하엿다는데 긔성회 간부씨명은다음과갓다

會長 趙昌元 副會長 白南俊 財務幹事 禹宗林 元容國 朱裕 漸 姜興洛 評議員 韓國甫 梁昌錫 朴濟憲 李達憲 金東烈 嚴致谷 梁元常 韓昌鉉 曹鐵堯 白南琡 趙鳳禧 金衛相 張尙炫 李命燮 趙成龍 金活榮 金斗錫 崔昌善 顧問 張榮震 車性奎 金昇龍 朴應俊 林昇垢 陳商行 金貞武 崔國楨 林鳳仁 金炳哲 (各面分會長 各面面長 十三人 二人式選出한것임)

本報愛讀者의 實費診療週間

【淸津】본보청진지국에서는 관내독자를 우대하기위하야 금월이십오일부터 삼십일일까지 약일주일동안을 실비진료주간으로 정하고 동경의학사(東京醫學士)로 경성의학전문출신자병원에 근무하다가얼마전 청진에서 새로개업한 덕제의원장(德濟醫院)리주영(李周泳)씨에게 촉탁하야 본보애독자에한하야 무료진찰과 실비치료를 하기로되얏는데 진료시간은 매일오후 한시부터 동오시까지라고한다

平壤警察署에서 乞人一齊掃蕩

【平壤】평양서에서는 이십사일 오전일곱시부터 서원을 비상소집하야 시내의 걸인을 일제검거하엿는데 검거망에 걸린걸인이 사십구명으로 일단취조후고향으로 방축키로 되엿다 압흐로도 평양시가에서 걸인을 일소코저 계속하여 취체하기로 되엿다한다

姦夫姦婦共謀 本夫毒殺

【浦項】팔년동안 동거하야 일남일녀까지둔 여자가 간부와 공모하고 본부를독살한사건이잇다 경북영일군 달전면유강동(迎日郡達田面柳江洞) 조재출(曹載出)(三二)의처 김순남(金順男)(二六)이라는녀자는 십팔년전부터 남편의 눈을속이고 가튼동리에사는 곽도선(郭道先)(三七)이라는 사나히와 비밀한 정을통하는것을 남편의삼촌에게 발견된사실이 잇섯는데 작년음력 십일월 이십일경남편이 감기들린것을 기회로 간부와공모하고 음식물에 독약을타먹여 즉사케하엿다고한다 그러하고 간부부부는 남편의재산을가지고 경주군안강(慶州郡安康)으로가서 동거하든중 최근사실이 발각되여 방금포항경찰서(浦項署)에 검거되여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한다

漣川殺人强盜

取調段落送局

【漣川】긔보=련천군 미산면 마전리(嵋山面麻田里)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김가봉(金加鳳)(三〇)은 이달 십사일에 검거된후 련천경찰서에서 수등서장(首藤署長)이 엄중한 취조를하야 오든바 여죄는 업는모양이나 대담한범인의 소행이니만치 사실이 복잡하엿슴으로 증인이 삼십일명이오 취조서류가 오백여페지에 달하엿다는데 일건서류와 범인은 지난 이십사일에 검사국에 송치하엿다한다

地方人事

▲田中警部(全州警察署高等主任) 新任人事次 全州支局來訪

▲金容鎭氏(延壽敎長)全州高普敎諭로轉勤人事次 本社全州支局來訪

▲堂本鎭雄氏(平壤專賣分事局監督課長) 新任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異次頓의死 【125】

李光洙 作 金奎澤 畵

군사들의 아우성은 더욱 크게 들린다。궐내에서도 자던사람들이 모도 깨어서 웅성거렷다。

임금은 이것이 다 선마로와 공목、알공의 농간인줄을 아십으로 마음에 깁피 분하셧다。

『그러니 어떠케 하란 말이냐』

하고 임금은 한참이나 말업시 게시다가 약간 노긔를 띈 어성으로 선마로에게 말하엿다。

『저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할 도리를 하시오』

하고 선마로는 아뢰엇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노흔 사람이 진정하렴으나。이를 떼려 어찌하라 하느냐』

하고 임금의 말씀은 떼욱 놉팟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노흔것은 이차돈이오。이차돈을 버이시면 백성들의 마음은 진정될줄아오。』

『악한 무리의 계교를 들어서 은 형이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어리석은 군사들을 충동하야 밥소동에 범궐을 식히고、그래 네가 이런 천륜을 어긔고 인륜을 어긔고 마츰내 네손으로 네 형을 죽이고라도 임금의 자리에 오른다면 백성이 너를 놉히고 하늘이 너를 용서할듯십흐냐。알꾸아 너는 그 요망하고 독한 혀끄트로 형제와 군신을 이간하고 요언을 돌려서 인심을 어지럽게하고도 하늘이 무서운줄을 모르거니와 아까 네가 맹세한바와 가티 오늘 해전으로 네 목이 날아나고 네 새끼들이 몰살할는지 어찌 아느냐。악한놈의 꾀가 이기고 선한사람이 망하는 천지라면 구태어 아깝게 여길것도 업거니와 이몸이 밋건댄 이천지가 부서지기까지、악한 일을 하는자는 반다시 고만한 기품으로 앙갑흠을 밧는것이니라。이몸이 비록 죽고 선한 사람을 버릴수는 업다。이몸은 이차돈으로 평양공주의 부마를 삼아서 태자를 봉할 생각이다。너는 이몸의 동긔로서 동긔의 정과 의를 가지고 이몸을 도으려하지아니하고 가슴에 불측한 마음을 품고항상 이몸을 해하려하는줄은 이몸이 아모리 어두어도 벌서부터 다 알고잇는 일이다。

태자가 죽은 뒤에 이몸이 아들이 업스매 이자리를 선마로네게 전할 마음이 일어낫것이 인정이아니냐。그러나 네 마음을 보매 올흔것을 사모하지아니하고 사욕만 탐하야서 간사한 무리를 사고여 매양 옳지못한 일을 하려하여。그런일을 볼 때에 이몸의 가슴은 칼로 어의는듯아팟다。이러한 사람이 나라를 맡아서 임금이되면 을은 신하는 다물러가고 간사한 무리들이 조정에 차서 백성은 어육이 될것이오、나라는 망하여버리라고。그러매로 이몸은죽은 꿈꾹의 정으로 네 마음을 옳지기려고도 하여보고 옳은 말로 너를 훈계도 하여서 행려나 마음을 고칠까、행혀나 이몸의 뒤를 이울까、하엿건마는 선마로야、너도 벌서 두 귀밋헤 센 터럭이 보이건마는 아직도 저 여오가튼 알공의 무리、올흔것을 올흔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올라고 못하고 끌려다니는 공목의 무리의 말을듯고 할일이 어것이란말이냐。할리 업다。병들엇스나 너희가 어찌 되는것을 이 눈으로 보기전에는 눈을 감지아니하란다。선마로야! 선마로야! 하여보아라! 어듸 네 마음대로 하여보아라! 이몸은 이제 여 숫 마을 누구누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일을 의논하려하거니와 너희는 물러가거라。다시는、다시는 이몸의 눈압헤 보이지말어라!』

하고 임금은 어성을 놉히시엇다。

그리고 임금은、

『이보아라!』

하고 가까이 모시는 신하를부르시어、

『이보아라、나라에 큰일이 잇스니 한나마이상으로 모도 들라하여라。그리하되 소세도 할것 업스니 일각 지체말고 입궐하라 하여라』

하고 명을 나리시엇다。

어명을 바든 신하가 물러나갈 때에 임금은

『이보아라』

하야 그를 다시 부르시어、

『네 몸소 궐문밧게 나가서 저 아우성하는 군사를 보고 이몸의 말이라 하고、오늘 해뜨기까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줄것이매 다들 물러가라 하여라』

하셧다。

『상감마마』

하고 선마로가 입궐께 엿주엇스나 임금은 대답이 업스시엇다。

三好化粧品은 現代女性의伴侶者

香、色、質은科學的!

三好化粧品은 研究와 實驗에 盡力하고 實際에 苦心한 結果로나남이 其實과 實이가장 進步的이오現代的이오實用的인化粧品입니다

그래서 外來品을 壓倒하는結果에잇스니 이것은 남달리 獨特한살결을가진 朝鮮婦人의 皮膚를研究하는까닭입니다

本社主要製品 (其他五十餘種)

三好クリーム 三好水白粉 三好練白粉 三好刷白粉 三好化粧水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ポマード

三好固練白粉 三好ベラーム 三好頰紅 三好コンパクト 三好張粉白粉 コリア石鹸 (코리아) 鶴林石鹸 三一石鹸

京城府昭格洞一五九 三好化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 振替京城一五九五八

림질

ネオチリン 네오지린

可恐할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茲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써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淋疾、膀胱、尿道炎도解消된다。(療法書進呈)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西宮市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鮮藥店百貨店에잇슴

新案特許 長谷部式製麵機

特別割引

製麵機中의覇王

發賣開始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元

カタログ送呈

ライト輕油發動機 二馬力부터 十二馬力까지 型錄請求에는 錢切手要함

特約店募集

朝鮮販賣元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一四三七番・振替京城一八二四三番

資生堂洗濯石鹸

衣服바탕을안버리고잘빨닙니다!

本品의特長

一、最高의品質 最低의價格

一、거품이 잘나오고

一、洗濯한뒤에 不快한내음을안남기고 쓰기조타

一、淨白力强하고 經濟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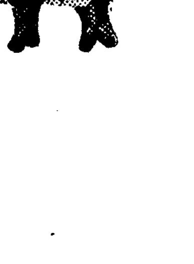
東京銀座 資生堂

봄의색씨들이여

幸福의꿈이가득찬가슴에

明朗快活味가넘처서

健康美와生活力이됨니다



Morinaga MILK CHOCOLATE

쪼코레ー트와도가치

森永ミルクチヨコレート

밀크쪼코레ー트

5sen・10sen・20sen

森永製菓株式會社

C-7

三月二十五日부터五日間 正午十二時브터 六時까지續映 七時始映

封切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

一英ゴーモン製作

東和商事提供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월리ー드

죤・밀스・바리・맛케이主演

海國의榮譽

大洋中心에웃둑선一孤島의絕頂에 一挺銃과傷處를마다 빗든목숨을驪身한英國의一水兵!나라를爲한赤誠烈烈한氣勢發揚은一동자로只今一大壯擧를敢行하려한다

鬼神을울니치는海戰映畵!

獨逸우파社超發聲全發聲日本版

監督게오ー루・야코비

항가리아의明星말타・에겔트主演

찰다스公主

아름다운항가리아의情熱的曲線을타고흐르는찰다스公主의노래!

처음의밧치는名篇!

松竹키네마社超特作

躍進日本과世界

世界를相對한日本의大作品

次週鑛務姿影、次週野性の叫び近年의秀位篇封切

仁寺洞 電光三六二

朝鮮劇場

二十七日ヨリ二十九日迄特別公開 一日二回晝十二時半、夜六時半始

階上階下均一大人三〇、學生二〇

‖今週の映畫‖

▲フォックス映畫超大作日本版

アーヴィング・カミングス監督

テムプルちゃん お芽出度う

シャーリー・テムプル

ジョン・ボールズ

ロシェル・ハドスン 主演

春は世界一の人氣者可愛いテムプル嬢が唄ひ踊つて皆様を夢の世界へ御案内、テムプル映畫中の白眉

▲メトロ映畫超特作發聲日本版

リチャード・ロッソン監督作品

空の軍隊

ウォーレス・ビアリイ

ロバート・ヤング

モーリン・オサリヴン 主演

太平洋の彼方白雲を劈めて空の軍隊、銀翼一閃忽ち機銃掃射!

▲オールサウンド版

帝國日本の精華 赤心城

集秀人・佐久間妙子主演

四月一日封切…一九三六年の六放送、魔術の女王、上海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〇四番

毎日晝夜二回興行(午前十一時開映)

三月廿五日より特選女性週間

墺國トビス・サッシャ映畫日本版

『婦人公論』所載

〃維納幻想曲〃の主人公 我が明眸ソプラノ歌手 田中路子主演

〃未完成交響樂〃の ハンス・ヤーライ共演

戀は終りぬ

ウイーンの樂壇に咲いた美しい日本娘と若い指揮者の戀、中年作曲家の死の求愛、黄昏の街ウイーンはしつくりと夜の霧に濡れてるの

新興キネマ大力作、オールサウンド

高田稔主演 新興麗人顔總出演

後篇 曉の麗人

曉の麗人!とは誰が謂ひし言葉ぞ、優しくも强く、勁く弱はし共る名、されど此の美しき言葉の影に淚する幾多の女性、ああー!

永樂町 電本三三 中央館

馬場財政의機能檢討
私經濟動搖時代
惡性떼풀레憂慮

財政膨脹의 財源을 何處에서 求하여야될가 하는데 對하야는 資本主義機構下에서는 明瞭하지안흘수업다 高橋健全財政은 資本主義機構擁護를 爲하야 끗까지 無理한 財源捻出을 하지안흐려고 한것으로서 이點에서 高橋財政은 資本主義機構의 擁護를 意味하얏다 그런데 國家를爲하야서는 그것이 도리혀 反時代的이라는 非難을免치못하게되고 今日에이르러서는 資本主義機構가如何케되든지 엇더든지 無理한財源捻出을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다。그러라고하야서 最初부터 資本主義機構를 一擲하야버리면 無理한財源捻出도 아무關係를 일으키지안흘터인데 現在目前에잇는것이 資本主義機構이닛가 거기서國家를爲하야 國民經濟를 犧牲하며 公經濟를爲하야 私經濟를犧牲하는것과가튼 財源捻出方法을 行하면 資本主義의 動搖로부터 여러가지 問題를惹起하야 大藏大臣이 國民經濟에 經濟恐慌으로써 國家하지안흐면안되게되엿다。

×

然이나 今日에잇서서는 國家를爲하야 國民經濟를 犧牲치안으면 안될 情勢에 노여잇슴으로 增稅에 버금하야 國營 國營에이어서統制를斷行하야 國民經濟時代로부터 國家經濟時代로 私經濟에서 公經濟로移動되며 私經濟의 分野가縮少되며 國民經濟生活이 괴롭게되여 僞造不況狀態로 化할것은 否定치못할것이나 그러한大局論보담도 爲先 엇더케 國民經濟로부터 國家經濟에의 推移를 보담더 圓滑하게할수잇슬가하는것이大問題다 이點으로부터 생각하야보아도 俗人이 생각하는바와가티 赤字公債增發과增稅, 國營, 統制의 넷을同時에 斷行함과如한 荒唐한 政策은 如何한 大藏大臣으로서도 不可能할일이라고 볼수잇다 아마도以上의 넷을同時에 行하는것이 안일가 赤字公債增發을 斷行하며 增稅로依하야 增稅가 窮塞하게되면 「카버」하며 國營이 움직이고 國營이 擴張하여가면 統制時代로 되지안을가? 勿論多少의增稅는 赤字公債增發과 並行할것이나 大增稅는 赤字「인푸레」가 斷行되지안흐면 斷行할수업슬것으로보인다 況 國營統制에잇서서야 相當한必要조차업서서 事實에行하게되는 事前策이아니고 事後에 行하게되는 死後策的으로 事實策으로서의 赤字인플레든지 增稅가 斷行되지안흐면 斷行못하는것이다。卽 赤字인플레든지 增稅가 行할때까지 行하다음에 窮塞하게되면 그때에 國營에依한 財源의 捻出을 생각하게되며또 한赤字「인푸레」가金融恐慌또는 惡性「인푸레」「일으킬」憂慮가 잇게되면 그때는 統制가 動하게되는 順序로될것이아닐가?

×

이런關係로 赤字인플레와 增稅가 相當히 進行되지안흐면 國營이든지 統制의時代가 되지못한다고 말할수잇다 赤字인플레와增稅가 아직 餘地잇슬때에는 國營이라든지 統制를實施하게하면 틀이여 不利한까닭이다。그런고로 天下의大勢는 國民經濟時代로부터國家經濟時代로 移動하는것으로 인푸레 增稅로부터 國營 統制에 이르게된다고하야도 아직까지는 인푸레時代며 增稅時代라고 볼수밧게업다 이제로부터 國營이라던지 統制를受理하야 發表하는것은 財界人으로서는 틀이여 不得策이라고 보는 사람도잇다。그럼으로 大局觀으로서는 國家經濟時代는 左의四大期를經由하여야徹底한것으로보인다

第一期 赤字인푸레時代
第二期 增稅時代
第三期 國營時代
第四期 統制時代

×

財政革命이냐 金融恐慌이냐의問題는 찰아리 當面한赤字의公債增發이 果然圓滑하게行하게될與否에잇다 財政機構全面的改善이업시는 赤字公債增發은惡性인푸레를 招치안코는 못할수업다고 悲觀하는사람도잇스나 財政機構의 全面的改善을 이제直時斷行하는것은 아마도 現實的으로 不可能할일로서 찰아리反對로 金融恐慌 또는惡性인푸레의 惡勢에依하야 財政機構가改善하야간다고볼수밧게업지안흘가?

×

아마도 惡性인푸레는 最後의 危險한時에생기는것으로 그새이까지는돌이여 財政인플레低金利와赤字公債 增發에도不拘하고惡性떼풀레가, 생기기容易하다 大槪는 私經濟原則에 不安이잇슬時代에는 全面的한 인푸레는 생기지못하는까닭이다 그것보담도 인푸레는 그根本이 私經濟現象이니 그러타。馬場財政以前에는 私經濟原則은微動조차업섯다、그것이馬場財政時代에들어서는 正反對로되여 私經濟原則은 公經濟인푸레에 威脅받지안흐면안되게되엿다 그럼으로 (一)取引減少(二)市場閑散(三)人氣萎縮 (四)購買力減退로 景氣가 惡化하는것은 勿論이요 財界收縮으로不利한議論을 불러오하지안는다고는 말할수업다 商業이나株式이나 金樣以外에는 買氣가拂地狀態에 빠진것도 當然한일이다

그럼으로 非常한時代에 低金利라던지財政인푸레를 樂觀치못하는것은勿論이다 借換에憂慮가업는 公債社債類가 艱辛히 低金利의餘惠를입을뿐이다 株式의大勢反動과 商品市勢의 不動는 當分의 情勢일것으로 私經濟原則의動搖期에 市勢다운市勢가잇슬理가업슬것이다

今日財界 (廿六日)

◆米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〇·八〇	三高
大阪期米	先限	三〇·九三	六高
●三等米 (京城二等白米百斤에서 下값)	一石	二六·八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市中金融

一斤價三等	一分貳	一分貳
貸金	十四錢五厘	十四錢五厘
	十六錢〇厘	十六錢〇厘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一〇高
東新	[illegible]	一五〇高
日產	[illegible]	八〇高

◆商品 (先限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一〇〇高
大阪棉花	[illegible]	一五〇高
大阪人絹	[illegible]	一〇〇高
大阪砂糖	一三·〇五	一〇高
고무現	五四錢七厘	不變

米穀低資貸出額 四千八百餘萬圓
應急低資三千萬圓不足으로 金融機關自己資金貸出

빗지면서팔지안어

今年二月末現在 의 殖銀東拓朝 銀金組의 米穀 低資運用槪況은 總督府理財課調 査에 依하면 總 貸出高四千八百 三十九萬五千圓 으로 그貸出行 別은(單位千圓)

朝銀	一一、〇五三
殖銀	一三、一七〇
東拓	一一、四二六
金組	三、七三四

언바 注目되는것은 低資의融通額不足으로서 金組는 若干의貸出餘力이잇스나 三金融機關의自己資金貸出은 朝銀四百三十六萬三千圓 殖銀九百四十七萬八千圓 東拓三百二十三萬六千圓으로 合計一千七百六萬七千圓의 不足이오 米穀應急低資의 三千萬圓으로는 不足을告한 膨脹이엇다。이는 先高豫想으로 大農側과商人이 賣惜하야 移出치안코잇는 때문에 米資가如斯히 膨脹되것이다。

日本高周波會社 朝鮮에工場設立
日產四百噸을處理

日本高周波金工業會社에서는 神奈川縣 觀見工場에서 衛藏電波에依한 特殊鑛製鍊의 事業化에對하야 銳意硏究中이든바 問題視되든 製鍊能力이 當初의 三키로와트로부터 一百키로와트까지 擴大할自信이섯슴으로 同社에서는 朝鮮에 工場을 設立코저過般 高橋專務가 渡東하야 協議한結果 朝鮮에 分工場을 設置키로 決定하고 日產處理 四百噸의 粉鑛으로서 二百噸의鋼鐵을 製鍊키로 되엇다 原鑛은利原鐵山의 粉鑛을 利用하고 自家發電에 依하야 操業할것인데 工場地는 未定이오 鑛石運搬關係電力關係를 考慮하야 가장조흔 土地를 選定키로 되엇스며 來月中旬까지에는 工場地를 決定하고 直時着工할豫定인데 電力關係로 操業은 來年이되리라하며 右工場의 建設資金은 七十萬圓 自家發電으로 約百萬圓을 要하리라한다

京畿四無煙會社 合同工作을開始

京畿道內四無煙炭會社合同工作은 二月末以來 道會及事務機關의 關係上 道內務部의 工作이 늣게되엇든바 지난二十三日로서 關係四社로부터 各其合同에 對한 答申及資產評價의 明細가와잇슴으로 道에서는 뜨되여下旬末부터 具體的 合同工作을 開始하기로되엿다 合同에關한 道의 意向으로서는 關係各社의 圓滿한了解成立을 希望하야 이로因하야 若干合同成立의 遲延되더래도 조금도 介意치안을態度다

簡保契約高 一億六千萬圓

朝鮮簡易生命保險의 三月末現在 契約總件數는 日本內地人 二十二萬八千七百五十七件 朝鮮人五十七萬四千四百件 合計八十一萬三千百五十七件으로 그保險料는 八十萬九千百四十八圓 九十錢이오保險金額은一億五千九十五萬三千百九圓이고 契約者一件平均의 保險料는 九十九錢五厘 契約者 一件平均保險金은 百八十五圓六十錢이라한다

製絲工場 原料不足
또休業할모양

朝鮮內輸出製絲工場의 端境期原料難不足問題는 舊正休業期間의延長으로 多少緩和되엿스나 片倉、鐘紡、兩製絲를除한東洋、朝鮮、全北道是 郡是等의 各製絲는端境期에 一二週間의 休業을하게될模樣이다 岩村製絲는 原料의 準備가업서 이端境期에는 一個月餘의 休業을하리라한다

合同無煙에 奮朝無抱括
近間具體化?

朝鮮無煙炭大合同에 際하야 最初의 七社가 脫落하고 四社合同이되엇는데 此際奮朝無의 脫退는 同社가 問題의三陟에 私有鑛區를有한 特殊權益問題에잇섯스나 三陟은 無煙炭合同에의 解放으로되어 이反對理由가 解消되는 同時에 이奮朝無鑛區의 合同無煙에의 讓渡가 將來的의 問題로서 남는一方 朝鮮無煙炭의 日本內地市場開拓에는 同社의 新合同無煙에의 統制가必要한 情勢임으로 上述의 三陟의 解決問題도잇서서 早急히 奮朝無의 新朝無에의 合同問題再燃이 具體化되리라고 豫想되다한다

產業調查會 各局提案會集

產業調查會에의 提出議案은 各局으로부터의 答申이모이어此等의議案中에는 最近의 時潮인統制國策에 關한 相當英斷的의것은山積하얏는데 所管殖產局에서는 이것을 整理한後 四月上旬中에 第一回準備調查委員會를開催하고
一、調查會委員의 正式銓衡
一、附議議案의 調整整理等을協議키로되엇다

不當競爭排除코저 航路統制를强行
遞信省에서議會提案準備

【東京電話同盟】日本海運界는 異常的發展을遂하는中인데 이와同時에 受命定期航路外에 不定期船의進出이 顯著하야 그結果 兩者의不當不要한競爭을 現出하야 海運業의正常한 發展을阻害할念慮가잇슴으로 遞信省은 海運業助長이란 國策의見地에立脚하야 統制에着手하고 海運界에秩序잇는 航路를制定하기爲하야 새로이 航路統制法을 制定키로決定하고目下立案을急히하는中인데 來五月의特別議會에 提案할方針이라한다 同法의骨子는 如左하다
一、定期航路와 不定期航路와의 不要한競爭을 法律로써防止함
二、統制方法은 航路를中心으로하고 海運會社의資本統制는 行치안흠
三、航路는 一般受命航路에 準하야 統制함
四、法律의發動은 航路의强化乃至는 認可의形式에依하던지 또는 一般으로 航路를認하는 特히不要有害한 航路에對하야서는 禁止形式에依하는等은 法制局과協議한後 決行함
五、不定期航路에對하야서는 適當한方法에依하야 그發達調整을 圖함

鰮油共販의 入札者決定
十一業者를 指名

新設된 朝鮮產鰮油統制의 入札共販參加業者指名은 基本契約에 依하야朝鮮總督府에서 銓衡中이든바 二十六日付로써 如左히 十一業者에 指名되엇다 指名業者의 大部分은 前統制의 踏襲으로林兼商店은 資格을喪失하고 그대신라이온石鹼이 新參加하얏다卽
▲合同油脂株式會社▲朝鮮窒素株式會社 ▲朝鮮油脂株式會社 ▲旭電化株式會社 ▲벨베트石鹼株式會社 ▲大阪曹水素株式會社 ▲日本曹達 ▲日本食料工業 ▲라이온石鹼 ▲三井物產 ▲三菱商事會社 以上 各社는 新統制期限 十一年四月부터 三個年間 魚油共販에 入札資格을 得할려이다

米日爲替保合

【紐育廿五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 比較하면 廿八弗九十三仙으로保合이오 廿八弗十一仙으로保合이다

東京爲替(廿六日)

	賣	買
對米	廿八弗入分七	二十九弗
對英	一志二片卅一分卅一	一志二片

大阪爲替(廿六日)

	賣	買
對米	二十八弗入分七	二十九弗
對英	一志一片卅二分卅一	一志二片

會寧人絹팔프 別個會社創立

會寧에잇는 人絹팔프工場은建設의形便上 東洋팔프分工場으로서 準備中인데結局資本金二百萬圓程度의 別個會社를 創立하고 本社를京城에置하야 이것을 經營키로되엇는바 事業進捗에伴하야 順次增資할 方針이라한다

局鐵朝鮮米發送
三月二十五日

	今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增
平壤	[illegible]	[illegible]	—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九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減

東拓支店長異動

東拓은裡里支店不祥事件에 關한 異動을 如左히 二十五日付로發表하얏다
▲裡里支店長齋藤竹次郎 命朝鮮支社勤務▲沙里院支店長 西廣友次郎 命裡里支店長▲木浦支店長 大場義雄 命沙里院支店長▲本店總務課長 笠井淳 命木浦支店長▲本店經理課長 米澤宮久松 命總務課長兼務▲大田支店金融主任 末田和四郎 命大田支店次長兼務

煙草賣渡高

專賣局三月中旬의 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百十二萬八千八百四十二圓으로各支局別은
▲京城四四〇、二六二圓 ▲全州二四七、〇五二圓 ▲大邱二一五、〇八五圓 ▲平壤二二、九九三圓을 前年同期에 比하야二割八分四厘增이다

經濟界消息

○金剛山電氣九分配據置豫定=金剛山電氣에서는 來二十七日東京에서 重役會를 開催하고五月上旬에 定時總會를 東京에서 開催할 豫定인데 配當은 九分据置方針이라고

○氷合同創總日字決定=京城의氷業者合同에 依한 新合同會社인京城製氷會社의 創立總會는 京城天然氷、朝鮮天然氷의 解散總會가 各其 終了되엇스므로 四月十二日 京城府民館에서 開催하기로 決定되엇다 新會社의 資本金은 百萬圓 全額拂込으로 社長은 志岐信太郎氏가 되리라고。

○送電會社初配當五分=朝鮮送電會社에서는 四月末로써 第四期決算을마감하고 五月末第四回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할터인데 當期는期初부터 平壤送電開始에依하야 營業을開始하얏슴으로 年五分內外의 初配當을行하리라고

○遞信分掌局監督課長會議開會=遞信分掌局監督課長會議는 二十六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遞信局分館會議室에서 開會하얏다고

○朝滿商議理事會=朝滿商工會議所理事會는 四月二十、二十一日 兩日間 淸津에서 開催하고 또日本商工會議所理事會는 六月二十九、三十日兩日間 小樽에서 開催한다는데 京城商議에서는 兩會에伊藤理事가 出席하리라고

株式 突込反動 反騰

商況【廿六日】

前場反騰 昨後場東新低價後反高로든것이어 東京昨後引突

賣込反動高나 兩建政策嫌氣

昭和六年十月의 九十一圓以來의 低價를示現한東京東新은 昨日다시百二十圓割로 二十三日의低價百十九圓三十錢을二十錢위로 九圓五十錢、當地는 百十九圓十錢으로 新低價에까지떠러지고나서 百二十四圓臺로뛰어서 二番底인듯하얏는데 今前場은 東京五圓九十錢 當地五圓五十錢으로 反騰好勢이엇다。突込後이라 此邊좀 더올을지모르나 政府는公債增發低金利政策의 徹底를期하는一方 大增稅와 產業統制를 强化코저하야 맛치再建式方針에依하야難局을 打開코저하는데 元來再建이란巧妙히 解키어려운것으로 自信업는方針이 卽兩建이라。政策에兩建亦갈팡질팡하는것을 諦하는것으로 市場人氣를 暗黑케하고잇다

從來는案뿐이엇스나 이것이實行期에入하면 어떤衝動을 與할지 걱정되는터이오 소리만듯고도恐怖인株界의 前途는 實行으로어떠한지경에 豫想지못되리다 將來財界는 一寸前을 내다볼수업는터로서 政策轉換下에잇서는 金利低落으로는 株式의 買氣를勃興식힐수업고 資本家나 大衆生活이나 또다不安에싸여잇서絕望狀態인즉 突込買의 反動以外는上進을 期할수업는 實情인즉 우선政策이 判明되기나 기대릴수밧게업다。

二百圓說도不無

二、二六事件以來 悲觀할대로悲觀하얏고 恐怖할때로 恐怖하야 最惡境遇를 이미豫想한市勢가나와서 東新百十九圓臺를 두번식보이고서 底入을形成한듯한感도不無한바 이로부터 어떤政策이實現케되던지間에 市勢에織込되엿以上의 惡影響은업슬것이오惡材料에는그만하면곳疫性이 생기도하하얏슬것이니 今後는 軍備大擴張인푸레로 東新二百圓으로 轉換될것이라는 大强氣論이一部에 擡頭되어 市人의 耳目을 끌나게하고잇다。

前場 高로氣配高이더니 今前場은微騰步調로 買人氣蘇生의 感이잇섯다 卽昨後引에 比하야東新三圓十錢高인 百二十五圓五十錢日產九十錢高인 六十九圓四十錢鐘新一圓五十錢高인百三十九圓丁朝新二十六圓十錢에 大引되고大新十錢高인七十三圓六十錢이엇다

▲東新	三二四 (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反弛

後場은東新百二十四圓九十錢 日產六十九圓七十錢 鐘新百三十九圓六十錢에强調로 買物不繼하야 東新三圓九十錢 鐘新九圓丁朝新六圓丁 日產九圓二十錢에 更 弛大引

事業株人氣不安

軍需工業株는 當初豫算膨脹을 好感하얏스나 今後는 軍部의干涉과共히 單價引下、配當制限强化에依하야 妙味가적어지고 砂糖株는 增配期待가解消되고 麥酒株는 獨占化되것이만큼 專賣化恐怖裡에 싸이어잇서 事業株는 全面的으로 採算目標가 되지안코 新機構의 判明까지 人氣的不安定이 繼續될모양이다

取引稅引上影響

大藏事務當局立案과가티 取引稅의第二種 (有價證券의 長期短期淸算取引)이 十割程度引上되면 取引員의負擔은 激增된다 現今長期取引에서 平均 一株三錢五厘年租度의 것이 七錢으로 되고 委託手數料를 引上케되어 取引員營業上의 大苦痛이되고 所得稅以下의 增徵과 相俟하야 取引의減衰는 難免이것을뿐아니라 取引稅가 引上되면 必然取引所營業稅에도 及할것으로 東株로서는 年額約百萬圓의것이 十割增稅로되면 그만큼으로 二分以上의 減配가될것으로 直接間接二重三重의 苦痛이라한다

四分利債引受旺盛

【東京電話同盟】保險會社方面의 日銀所持四分利公債에對한 買氣不衰하야 二十五日도 相當한申込이잇섯는데 前途觀望的低金利豫想과 公債强制保有等을 豫想한것이다

製紙와朝石株 短期上場認可

朝鮮取引所에서는 最近의 實物市場 地場花形株인北鮮製紙 朝鮮石油의兩株를 短期市場에 上場코저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든바 認可指令이 接하얏슴으로 四月中旬부터 上場키로되엇다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 七五、三〇 ▲人造肥料新 六六、三〇 ▲貯蓄銀行 三三、五〇 ▲北鮮製紙 六六、一〇 ▲窒素新 五五、〇〇 ▲朝鮮石油 五二、一〇 ▲三菱重工 七〇、三〇 ▲石川島新 五二、一〇 ▲帝國火藥 五五、一〇 (取引高百八十枚)

東京國債市場

五五分利	一〇一、四〇
一回四分利	九九、九〇
二回四分利	九九、九五
佛貨四分利	一八九、九五

期米 漸進步調 上向

前場低迷 昨後場阪地 三十一圓四十二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二十六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四十七錢인 四丁反高를報하엿슴에도 二十九圓二十五錢인 一丁反低로 場을始한後 阪地六節 四十二錢으로 四十七錢까지 返戾하엿다가 四十六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二節二十一錢으로 二十八錢까지 反返하엿다가 二十五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上進 後場은 二十九圓九錢에 四丁高로 始場後 漸高되어 五節三十五錢에 까지올르고 三十八錢에止場하다

米價前途一察
高價도亦難期

政府는 國內產業을 大體的으로 統制할 新政策을 樹立하고 잇다 쌀에對한統制는 實施한지 旣히三個星霜을經한 今日에 更一步를 進하야 米穀自治管理案을 來特別議會에 上程하야 期於코 實現케 하려한다 此階段을 밟번後에는 米穀專賣가 實施되기가十常八九인데 大體의政策은 大衆農民을救濟하는意味下에서 米穀自治管理案을 實施하려할인으로 米價의暴落을招致하야 農村經濟의危殆에陷하기까지의 政策을取하지안흘것은事實이다 그러면 政府는高米價政策만을取할것인가 한이問題인데 此에對하야 一考를要하면 高米價는 大農家의利益을 與할뿐으로 中農以下는 秋收期에서 一年間 農家負債를整理하는關係上 大部分을賣出하고 殘餘는 農民이大多數인지안흐면아니될 農民이大多數임으로 無理히 高米價의政策을實施할 理도업슬것가타 今回政府米第三次買上을實行하지안는 그點으로 보아서도 米價에對한 積極的方針을取하지안는것을알수잇다 그럼으로 米價의前途는 大體騰勢로 市勢가 容易히 展開되지안을것도 갓다고 市許이區區

持米側의態度
恐怖心이不無?

三月一日現在朝鮮의 在米는 昨年同期보다 百餘萬石의 增加를 示하엿다가 日本內地의 移出이 또한 不振하야 自地의騰貴을受하는傾向이 엇지아니하며 又는 廣田內閣의新政策은產業、經濟、增稅等 모든革新을 斷行하려하는今日인만치 財界의 指針인株式은稀有의 大慘落을 告하엿스니 米界에서도 財界의 事情을全혀 度外視할수업는 現象이다 그럼으로持米側은 恐怖心이 업지안흘것을 足히 推測할수잇다 더구나 時期는 漸次春暖期에接近하게되여 將次 變質의 念慮도 업지아니할것으로 不遠한時日에 恐怖的投物이 업지안흘가한다 此等의 實物이 續出하는때는 數段의 暴落을 豫期할수잇스슴 昨年과如히 四、五月頃까지 『모로히』買의 方針으로 策戰하다가 減穀의 程度如何를따아 비로소 買戰線에 入하는것이 良策이 아닐가한다

日本內地米取 土曜日半休
近間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昨二十五日東京米穀取引所樓上에서 協議한結果 日本內地米取는土曜半休키로 意見이一致되어 近間正式決定키로되엇다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市場六感

株 昨後場東京東新 百二十圓再割後 即時百二十四圓臺로反撥되든걸이 底入을 思케함이不無이오 今前引도 五圓九十錢으로 高價大引、좃대올을것이가?▲恐怖慘落이 여러번 繼續되어 買氣死滅지경에까지 至하엿섯스니가 一部에는 軍擴인푸레期待로 東新二百圓說이잇기는하나 ▲弱氣로 서는 이런때에 價位를 云爲할것이아니오 新政策實行에 伴하야 惡影響이 繼續될뿐아니라 特別議會、中限大取組等 禍根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買好味絕無라하야 强弱觀緣孫 ▲만하며 러저던 點으로보면 더買込할 餘地가업슬것도가트나 원악人氣가 總不安에서헤매는때이라 또 무슨소리에 놀라문어질지 모르는危險이잇기때문에 安心買의域에는 達치못한듯▲亦是 戾買이가보다

米 今年은乖天候이여서 舊曆正二月를다지나도록 寒威를繼續하더니 三月三辰을지낫今日은春暖氣分이제법濃厚 ▲春暖期는 即睡眠時代又는 看花市勢가展開된다는例言이잇스니 압흐로市勢는閑散? ▲그러나持米側으로서는 睡眠할사이가업시 心神이繁忙할여다 所持米를賣急하자니 損이날境遇 ▲더구나朝鮮은 數字的으로보아幾存米가涸渴한모양이니 實急하지안흘수도업슬걸 ▲昨今市勢는 一場瓦落을 示할듯하고도下遊保勢의前提? ▲月末戰도臨迫하엿스니 此邊에서保合하다가 終幕을告할모양? ▲그런데米界를떠나서 財界의一般事情을綜合하여보면 政治的威脅을더모든 物價가엉거주춤하고잇다米價인들 엇지單獨高를 保持하라? ▲今後端境期에入하야는在米濟의 一場波瀾을 拒絕할수몰으나 目前의現象으로보아서는 實米의威脅이업지안흘모양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地場筋、東京筋、朝鮮筋 ▲買方=地場筋、東京筋、小川自己地 場正米筋

各地正米

京城不變 市況閑散에 保合인데 賣物이업서 ... 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凡調 【仁川】春暖期로 賣行도不立이오 一齊買傍觀인一方產地는 採算不合으로 엇지로賣치는안코 市中取引은 極端으로저다 三等二十八、六〇 四等二十一、〇〇 一等白米 一二、九〇

釜山保合 【釜山】市場出廻 二千五百俵日本內地의 付價低落으로 商談不涉이오 依然必需以外에는 買物이업서 市况은弱保合인 正租八錢七厘 中入錢六厘下入利 五厘

大邱焦付 【大邱】期米探算系가 僅히 買氣를 潛入함뿐으로 環境不勢로 一般이氣迷이오 市況은閑散場面을 繼續하야 三等二八、七五 四等二八、四五 一等白米二一、二〇

群山小康 【群山】低落不滿으로 產地가 强硬히 賣惜함으로 市場은 實物가 賣物이업고 期米小强을보고 市況이 多少回復되는 氣味이엇스며 日本內地取引은 依然閑散을 免한 三等二十八圓九十五錢 四等二十二圓七十五錢 一等白米 十二圓八十錢

木浦不變 【木浦】市況閑散에 依然不變한 保合으로 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 十三圓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寧邊產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金融 廿六日

◆海外經濟◆三井

倫敦金塊	[illegible]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券◆三井

發行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券◆三井

發行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枚數	[illegible]	[illegible]
金額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日歩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大阪金利◆

日歩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illegible]
對英	[illegible]
上海	[illegible]

◆金買入價◆

朝鮮銀行	[illegible]
日本銀行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金	[illegible]
銀	[illegible]

米穀 廿六日

◆京城正米◆

四等米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大豆◆

玄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雜穀◆

小麥	[illegible]	[illegible]
白粉米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 廿六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鯨油沖價◆ [illegible]

◆鯨粕沖價◆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 廿六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糖 (8T) 實質中價二〇·七〇錢 ; 現物糖 價格十九〇錢

◆海外砂糖◆ [illegible]

期米 廿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七·三〇〇 中 五·三〇〇 先 五·九〇〇石 ; 合計 五〇·六〇〇石 ; 本期總計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各地正品市勢◆(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 京城 多摩錦 ; 仁川 銀坊主 ; 群山 銀坊主 ; 木浦 雄町 ; 大邱 穀良都 ; 鎭南浦 陸羽 ; 新義州 陸羽 ; 元山 龜尾 ; 咸興 陸羽 ; 馬山 穀良都 ; 平壤 陸羽 ; 釜山 穀良都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前場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價準◆ 日本米上 朝鮮米上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 玄米 白米 ; 朝鮮 玄米 白米 ; 臺灣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株式 廿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一·五九〇 累計八·九四〇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